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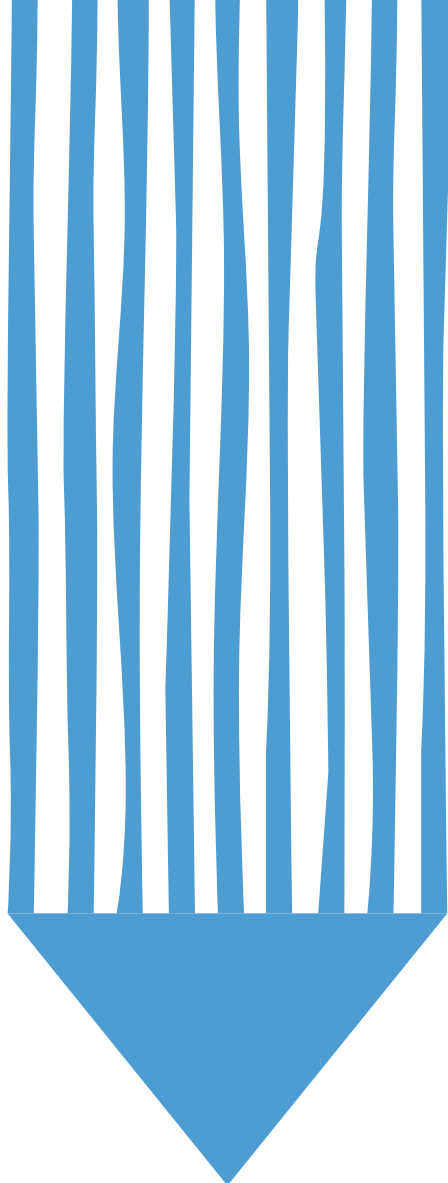


에듀원 콘텐츠 저작권 안내

(주)에듀원에서 제공하는 보충자료입니다. 아래의 콘텐츠 저작권 고지를 반드시 인지하시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실린 모든 편집 구성 및 형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주)에듀원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전송,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웹하드, P2P 등 (주)에듀원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온·오프라인에서의 공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1:1문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및 해설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영어

C

05 For a Better World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08

- 01 ②
 02 (1) audience (2) employee (3) enthusiastic (4) sculpture
 03 ③ 04 ④

- 01 ②는 '동사 : 명사'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 : 명사' 관계이다.
 ① 정확한 : 정확성 ② 정리(배열)하다 : 배열
 ③ 이용 가능한 : 이용 가능성 ④ 귀중한, 가치 있는 : 가치
 ⑤ 감사하는 : 감사
- 02 (1) 관객, 청중: 연극, 영화, 연설 등을 보거나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무리
 (2) 종업원, 직원: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3) 열정적인, 열렬한: 강렬하고 열정적인 즐거움, 흥미 또는 동의를 가지거나 보이는
 (4) 조각(품): 누군가가 돌, 금속 또는 나무와 같은 물질을 모양을 내어 예술 작품으로 만든 단단한 물체
- 03 프랑스 내에서 Jenny는 이민 가정의 구성원이므로 빈칸에는 immigrant(이민자, 이민 오는 사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Jenny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5살 때 그녀의 가족은 프랑스로 이주했고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프랑스 내의 이민자 가정의 구성원이다.
 ① 주인 ② 이민자 (이민 가는 사람)
 ④ 이방인 ⑤ 연장자; 상급생
- 04 <보기>와 ④의 yield는 '양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보기> 그녀는 버스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① 그 조사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들었다.
 ② 그 회사는 투자에 대한 최대의 수익을 산출한다.
 ③ 금연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들을 만들어낸다.
 ④ 차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⑤ 과학자들은 밀, 쌀, 옥수수와 같은 작물의 생산량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C 교과서 핵심 대화

p.009-010

- 01 ④ 02 ①

- 01 ④는 '당신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이고, 나머지는 '당신은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 02 '괜찮아요. 내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라며 거절하는 B의 말로 보아, A에는 어떤 일을 해주겠다는 제안의 표현인 ① '제가 그것을 도와줄게요.'가 적절하다.
 ② 산책하는 건 어떤가요?
 ③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집시다.
 ④ 저는 당신이 좋은 시간을 가지길 바라요.
 ⑤ 당신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C 교과서 기타 대화

p.011

- 01 F 02 T

- 01 극장에서 공연 중에 카메라는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02 Kahn 씨는 네팔에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NGO에서 일한다.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12

- 01 ② 02 ⑤ 03 let me remind you of the theater rules

- 01 나머지 한 권의 책을 서가에 갖다 놓겠다는 남자의 말에 잘못된 곳에 책을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여자의 말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② '책 카트에 올려놓아야 한다'가 적절하다.
 ① 음식이나 음료수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③ 이 책들을 서가로 옮겨야 한다
 ④ 이상한 것을 하도록 강요받다
 ⑤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한다
- 02 ⑤ A와 B 모두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흐름이 어색하다.
 ① A: 제가 가방을 들어 드릴게요.
 B: 오, 정말 고마워요.
 ② A: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B: 미안해요. 몰랐어요.
 ③ A: 제가 계획을 설명해 드릴게요.
 B: 저는 준비되었어요. 시작하세요.
 ④ A: 너는 8시까지 집에 와야 해.
 B: 좋아요. 그때까지 갈게요.
 ⑤ A: 컨벤션 센터 찾는 것을 도와 드릴까요?
 B: 저기, 제가 거기에 데려다드릴게요.
- 03 「Let me + 동사원형 ~.」은 '제가 ~하게 해 주세요.' 또는 '내가 ~해 줄게.'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안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p.013-014

- 01 ⑤ 02 turn → turned

- 01 ⑤ 선행사 the way는 관계부사 how와 동시에 쓸 수 없다. ①은 동격절 접속사 that이며, ②③④는 관계부사이다.
 ①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는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② 그는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③ 내가 너를 처음 만난 장소는 서울역이었다.
 ④ 나는 그녀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⑤ 그녀는 그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방법을 알고 싶어 했다.
- 02 「with + 명사 + 분사」에서 라디오는 사람에 의해 켜지므로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 turned로 고쳐 써야 한다.
 그는 라디오를 켜 채로 그의 새 차를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1

p.015

- 01 (1) the reason (2) when (3) where
 02 (1) where (2) the way
 (3) the reason (why) 또는 (the reason) why
 03 (1) Here is how we can protect ourselves from colds.
 (2) Does he remember the moment when we first met?
 (3) Remember the name of the store where you purchased the product.

- 01 (1)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가 나온 것으로 보아 선행사는 the reason이 적절하다.
 당신이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물어 봐도 될까요?
 (2) 선행사가 the year이므로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이 적절하다.
 Luke는 그 전쟁이 발발한 해에 태어났다.

(3) 선행사가 the house이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성장한 그 집에서 살고 계신다.

- 02 (1) at which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와 바꿔 쓸 수 있다.
경찰은 내 친구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
(2) how는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로 the way와 둘 중 하나만 쓸 수 있으므로 how를 the way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여배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말해 주었다.
(3) for which는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선행사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 선행사(the reason)나 관계부사(why)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the reason why(the reason / why)가 빈칸에 올 수 있다.
Jennifer는 그녀가 종종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03 (1)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에 유의한다.
(2)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에 유의한다.
(3)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에 유의한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2**

p.016

- 01 (1) closing → closed (2) turning → turned (3) carry → carried
(4) jumped → jumping
02 (1) With his heart beating fast
(2) With her hair blowing in the wind
(3) With the window broken
03 (1) bleeding (2) left (3) locked

- 01 (1)(2)(3)은 「with + 명사 + 분사」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 분사로 고쳐 쓰고, (4)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로 고쳐 쓴다.
(1) 그 남자는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맥주를 마시고 있다.
(2) 손전등을 켜 채로 Jason은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3) 그녀는 많은 지리학 책을 든 채로 집에 돌아왔다.
(4) 강아지들이 주변을 뛰어다니는 채로 그들은 소풍을 즐겼다.
- 02 (1) 「with + 명사 + 분사」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beating이 적절하다.
(2) 「with + 명사 + 분사」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blowing이 적절하다.
(3) 「with + 명사 + 분사」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broken이 적절하다.
- 03 (1) bleed는 '피를 흘리다'라는 뜻의 자동사이므로 과거분사가 아닌 현재분사 (bleeding)로 쓴다.
(2) 가방이 선반 위에 '남겨진'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left)로 쓴다.
(3) 문이 Tom에 의해 '잠긴'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locked)로 쓴다.

R 교과서 기타 **지문**

p.021

01 T 02 T

- 01 진수는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봤을 때 기뻐다.
02 이 글의 필자는 노인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지기**

p.022-023

- | | | | |
|---------------|---------------|----------------|------------|
| 01 why | 02 boring | 03 그렇지 않다. | 04 to help |
| 05 teaching | 06 immigrants | 07 encouraged | 08 시도하다 |
| 09 when | 10 asked | 11 named | 12 인사하다 |
| 13 saying | 14 held | 15 열정적인, 열렬한 | |
| 16 to keep | 17 that | 18 any | 19 written |
| 20 ~와 연락을 취하다 | | 21 Looking | 22 to make |
| 23 운영하다 | 24 that | 25 ~에 참여[참가]하다 | |

- | | | | |
|----------------|----------------|-----------------|--------------|
| 26 wall | 27 looked like | 28 sketches | 29 Although |
| 30 언짢아하다, 상관하다 | | 31 amazed | 32 공동 작업, 협력 |
| 33 exciting | 34 happy | 35 I could | 36 시각 장애인들 |
| 37 aloud | 38 what | 39 a quick test | 40 where |
| 41 beating | 42 strange | 43 had done | 44 reading |
| 45 do | | | |

T 내신 1등급 대비 **1회**

p.024-035

- 01 ③ 02 ⑤
03 (1) immigrant (2) accurate (3) mind (4) theme
04 (p)ronounce 05 ② 06 ⑤ 07 ③ 08 in
09 ③ 10 You're supposed to put it in the book cart. 11 ③
12 The carrot cake you brought on my birthday last week was delicious.
13 ② 14 ④
15 But basically, you're supposed to have a passion for humanity.
16 ⑤ 17 ② 18 roar → roaring
19 (1) where (2) when (3) how (4) why 20 ④ 21 ④
22 ⑤ 23 ①
24 Jake began to paint on the ceiling of the building with his legs shaking so hard.
25 ⑤ 26 ⑤ 27 ② 28 ② 29 ②
30 On the day when I first started volunteering 31 ③ 32 ②
33 When[As] I looked back 34 ② 35 ④ 36 ③
37 I said to myself, "That's what I've been looking for!" 38 ②
39 ② 40 ⑤ 41 sketches 42 ③ 43 run
44 ④ 45 who[that]

- 01 ③은 '가치 있는 : 가치 없는'이라는 뜻의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조각(품) ②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④ 필요한, 필수적인 ⑤ 긴장한, 불안해하는
- 02 ⑤의 영영풀이는 '서거나 걸을 때 땅에 닿는 발의 아랫부분'으로 sole(발바닥)에 해당한다. palm(손바닥)의 영영풀이로는 the inside part of your hand from your wrist to the base of your fingers(손목부터 손가락의 끝부분까지 손의 안쪽 부분)가 적절하다.
① 운영하다: 사업, 조직 또는 행사와 같은 무언가를 통제하고 조직하다
② 피를 흘리다: 부상이나 질병의 결과로 몸에서 피를 손실하다
③ (책을) 빌리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
④ 인사하다: 존경과 인사의 의미로 머리카락 상체를 구부리다
- 03 (1)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 다른 나라에 오는 사람: 이민자(immigrant)
(2) 올바른, 정확한 그리고 어떠한 실수도 없는: 정확한(accurate)
(3) 무언가에 의해 짜증이 나거나 걱정이 되다: 언짢아하다(mind)
(4) 회담, 책, 영화 등의 주요한 주제: 주제(theme)
- 04 '특정한 방식으로 단어나 글자를 말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pronounce(발음하다)이다.
- 05 <보기>와 ①③④⑤의 arrange는 '배열[정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②는 '미리' 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보기> 나는 테이블을 정리하는 종업원에게 저녁을 주문했다.
① 기차의 좌석은 서로 마주보게 배열되어 있었다.
② 나는 다음 주에 며칠 쉴 수 있도록 내 일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③ Tracy는 토마토를 크기에 따라 정리했다.
④ 내가 옷을 색깔별로 배열했으니 뒤쪽박죽으로 만들지 마.
⑤ 그는 책들을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 06 'A에게 B를 상기시키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remind A of B이다.

- ① 이 건물은 수리가 필요하다. (in need of: ~을 필요로 하는)
 ② 나는 절대 되돌아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look back: 되돌아 보다)
 ③ 많은 지역의 제빵사들이 그 대회에 참여한다. (participate in: ~에 참여[참가] 하다)
 ④ 잠시 쉬는 게 어떨까요? (take a break: 쉬다)
 ⑤ 레몬은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상쾌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 07 valuable은 '가치 있는'이라는 뜻으로 invaluable과 바꿔 쓸 수 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산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① 필수 불가결한 ② 이용 가능한 ④ 가치가 없는 ⑤ 양립할 수 있는
- 08 get in touch with: ~와 연락하다
 in need of: ~을 필요로 하는
 • 데이터 전송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세요.
 • 이 재미있는 행사는 도움이 필요한 처한 아이들을 위한 모금을 위해 열렸다.
- 09 수미가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다는 말에 '(C) 오, 안됐구나. 얼마나 그것을 하고 있어야 하니? - (A) 한 달 정도. 근데 나는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 (D)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들어 줄게. - (B) 오, 고마워. 너는 정말 친절하구나. - (E) 내가 기쁘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줘.'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 10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You're supposed to + 동사원형 ~.」을 이용해 영작한다.
- 11 남자가 나머지 책 한 권을 서가에 갖다 놓겠다고 했고, 여자는 만약 책을 잘못된 곳에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책 카트에 책을 올려놓으라고 말했다므로 ③은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2 총 12단어로 써야 하므로 The carrot cake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을 생각한다.
- 13 민수가 Brown 씨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빈칸 뒤에 '괜찮아. 나는 네가 여기 와 준 것만으로 기쁘단다.'라는 말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②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더 있나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당신이 감사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③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요.
 ④ 지금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⑤ 무슨 문제가 있나요?
- 14 어떠한 종류의 카메라나 녹화 장치도 극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므로 ④는 여자의 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5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You're supposed to + 동사원형 ~.」을 이용해 영작한다.
- 16 NGO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력과 인류를 위한 열정이라고 언급했으므로 ⑤ 'NGO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요건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이다.'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남자는 NGO에서 일하는 Beth Kahn 씨를 특별 손님으로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② Beth Kahn이 일하고 있는 NGO는 네팔에서 사람들을 돕는다.
 ③ 그 NGO는 시골 지역의 교육 계획을 지원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한다.
 ④ 2015년에 그 NGO는 네팔에서 지진 피해자들을 도왔다.
- 17 첫 번째 빈칸에는 '어디'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사 where가 적절하고, 두 번째 빈칸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his grandmother's house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where이다.
 •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우유를 어디로 사러 가는지 모른다.
 • Mitchell은 5년 동안 지내온 할머니 맥을 떠나고 싶지 않다.
- 18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roar를 현재 분사 roa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의 근처에 으르렁거리는 호랑이가 있어서 그는 잠시 가만히 있었다.
- 19 (1) 빈칸 앞에 장소(The countryside)가 나왔으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내가 4년 전에 일했던 시골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2) 빈칸 앞에 시간(the day)이 나왔으므로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이

- 적절하다.
 나는 내 남동생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
- (3)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흐름이므로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가 적절하다.
 당신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4) 빈칸 앞에 이유(The reason)가 나왔으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가 적절하다.
 내가 너에게 전화하지 못한 이유는 내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 어법상 옳은 문장은 ㉞㉟㉠이다. ㉞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현재분사 turning을 과거분사 turned로 고쳐 써야 한다.
 ㉠ TV가 켜진 채로 나는 잠들었다.
 ㉡ 지민이는 인형에게 한복을 입힌 채로 집에 가는 중이었다.
 ㉢ 가이드가 길을 안내해줘서 그 여행은 매우 안전하다.
 ㉣ 그 축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시작되면서 마무리됐다.
 ㉤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우리는 깜짝 놀랐다.
- 21 ④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므로 관계부사절의 전치사 in을 삭제하거나, where는 「전치사 + 관계대명사」인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where를 which로 바꿔 써야 한다.
 ① 이곳은 내 아들이 일하는 법률 회사이다.
 ② 그들은 유명한 현대 미술 작품이 많이 있는 한 박물관을 방문했다.
 ③ 나는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했던 내 고교시절을 기억한다.
 ④ 불행하게도, 우리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한 워터파크는 없다.
 ⑤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봄방학은 우리에게 다음 학년을 준비할 기회를 준다.
- 22 「with + 명사 + 분사」 구문은 문장의 주절과 함께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므로 주절의 동사와 시제를 일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⑤는 동사의 시제가 다르므로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르다.
 ① 그녀가 팔짱을 끼고 그를 야단쳤다.
 ② 빵을 구우면서 우리는 채소 수프를 요리했다.
 ③ 왕이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우리는 말을 잃었다.
 ④ 그의 발이 진흙에 빠져서 그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⑤ Olivia는 자신의 남편이 그녀를 쳐다보는 동안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다.
- 23 관계부사 when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moment가 생략되었으므로 ①이 적절하다.
 이때는 기계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순간이다.
- 24 「with + 명사 + 분사」 구문을 이용하고, 명사(his legs)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shake의 현재분사인 shaking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Jake는 그의 다리를 심하게 떨면서 건물의 천장을 페인트칠하기 시작했다.
- 25 첫 번째 빈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 두 번째 빈칸에는 restaurant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which(관계사절에 전치사 in이 있으므로 where는 들어갈 수 없다.), 세 번째 빈칸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 네 번째 빈칸에는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 나는 Henry에게 그가 매우 열심히 일했던 이유를 물었다.
 • 그녀는 Lucas가 기다리고 있는 식당을 찾을 수 없었다.
 • Tom은 그가 Anne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
 • 모든 학생이 그가 수학 문제를 풀었던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니다.
- 26 ⑤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release(출간하다)의 현재분사 releasing은 과거분사 released고 고쳐 써야 한다.
 ① 그는 강아지가 그를 따라오는 채로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② 그녀는 다리를 끈 채로 통화를 하고 있다.
 ③ 입이 가득 찬 채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④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걷고 있었다.
 ⑤ 새 책이 출간되어서 그 출판사의 직원들은 파티를 열었다.
- 27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쓰이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사용되므로 선행사 the way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관계부사 how이다.
 당신은 눈을 감고 피아노를 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 28 주어진 문장은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이유이다.'라는 뜻이므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 바로 뒤인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

- 하다.
- 29 (A) 「ask + 목적어 + 목적격보어(to부정사)」 구문이므로 to부정사 to help가 적절하다.
 (B) a volunteer를 수식하는 분사로 a volunteer가 '가르치는'능동의 의미이므로 현재분사 teaching이 적절하다.
 (C) interest는 '흥미를 끌다'라는 뜻이므로 '관심을 갖게 되는'이라는 의미는 과거분사 interested가 적절하다.
- 30 낱자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을 이용하고, start는 목적어로 동명사와 to부정사 둘 다 쓸 수 있는데 8단어로 써야 하므로 동명사를 목적어로 쓴다.
- 31 그녀가 한글로 낱말 쓰는 것을 내가 도와줬을 때,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는 데 열정적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 indifferent(무관심한)를 enthusiastic(열정적인)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32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현재분사 holding을 과거분사 held로 고쳐 써야 한다.
- 33 Looking back은 때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 when[as]으로 시작하는 부사절로 바꿔 쓸 수 있다.
- 34 주어진 글은 내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었고, 음성 자원봉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인 (B)가 오고, 며칠 후 테스트를 받았던 녹음실에 갔다는 (D)가 이어지고, 긴장했지만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 노력했다는 (C)가 오고, 마지막으로 그때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35 ㉔ 선행사는 the recording room이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으로 보아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로 고쳐 써야 한다.
- 36 ㉔ 바로 뒤에서 '하지만 녹음 담당자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므로 내 목소리가 감미롭게(sweet) 들린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strange) 들렸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37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과 과거에서부터 찾아 왔다는 의미의 현재완료 진행형 시제를 이용해 영작한다.
 say to oneself: 혼자말하다
- 38 ㉔ 바로 앞 문장의 '그 벽이 희고 깨끗했다' 과거의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시제인 had already painted로 고쳐 써야 한다.
- 39 (A) 그 동아리가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는 맥락이므로 participate(참여하다)가 적절하다.
 (give in: ~에 항복하다)
 (B) 그림의 주제가 '꿈의 정원'이었다는 맥락이므로 theme(주제)이 적절하다.
 (hypothesis: 가설)
 (C)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공동 작업이 텅 비어 있던 벽을 아름답고 신나는 정원으로 바꿨다는 흐름이므로 collaboration(공동 작업)이 적절하다.
 (compliance: 승낙; 준수)
- 40 주어진 문장은 '한 명 한 명, 동네의 아이들이 그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라는 뜻으로 ㉔ 뒤의 'They'가 아이들을 가리키므로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41 밑줄 친 them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sketches를 가리킨다.
- 42 자신의 꿈이 그림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처럼 느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㉔ '나는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놓쳤다
 ② 나는 몇 가지 이유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④ 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지쳤다
 ⑤ 아이들은 너무 신이 나서 잠을 잘 못 잤다
- 43 '사업, 조직 또는 행사와 같은 무언가를 통제하고 조직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run(운영하다)이다.
- 44 완성된 그림을 본 아이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표정을 보고 기뻐했다는 흐름이므로 © depressed(낙담한, 우울한)를 delighted(기쁜)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45 선행사가 사람(the children)이며, 뒤에 주어에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으로 보아 관계부사 where를 주격 관계대명사 who[that]로 고쳐 써야 한다.

- 01 ㉔ 02 ㉔
 03 (1) statue (2) audience (3) performance (4) empty
 04 (e)migrant 05 ㉔ 06 (r)emain 07 ㉔
 08 trouble walking 09 ㉔
 10 you're not supposed to bring any food or soft drinks 11 ㉔
 12 ㉔ 13 let me arrange the bowls in the cupboard for you
 14 ㉔ 15 ㉔ 16 ㉔
 17 Hugo managed to finish the project with his birthday party delayed.
 18 ㉔ 19 (1) where (2) when (3) how (4) why
 20 (1) leaning (2) brushed 21 ㉔, ㉔ 22 ㉔ 23 ㉔
 24 ㉔ 25 ㉔ 26 with 27 ㉔ 28 ㉔ → pleased
 29 ㉔ 30 ㉔ 31 ㉔ 32 (B) → pronunciation
 33 I started reading the book with my heart beating very fast. 34 ㉔
 35 ㉔ 36 see → to see
 37 Although she made some mistakes, she enjoyed reading the books and helping the blind.
 38 ㉔ 39 (A) an elementary school (B) wall 40 ㉔
 41 Our collaboration had turned the empty wall into a beautiful, exciting garden.
 42 ㉔ 43 ㉔ 44 ㉔ 45 ㉔

- 01 ㉔의 영영풀이는 '문학이나 음악 작품 또는 다른 예술 작품'으로 work(작품)의 영영풀이에 해당한다. seat(좌석)의 영영풀이는 a piece of furniture or part of a train, plane, etc. that has been designed for someone to sit on(누군가가 앉도록 만들어진 가구나 기차, 비행기 등의 일부분)이다.
 ① 자원봉사자: 보수를 받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
 ② 캔버스 천: 예술가들이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미술 캔버스나 다른 천
 ③ 장치: 특정한 것을 하는 기계나 장비
 ⑤ 고마워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해줘서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인
- 02 ㉔은 '정확한 : 정확성'이라는 뜻의 '형용사 : 명사'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 : 명사' 관계이다.
 ① 피를 흘리다 : 피 ② 공동으로 작업하다 : 공동 작업
 ④ 고용하다 : 고용인 ⑤ 녹음하다 : 녹음, 녹화
- 03 (1)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동물을 상징하는 큰 예술품: 조각(품) (statue)
 (2) 연극, 영화, 연설 등을 보거나 듣기 위해 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무리: 관객, 청중(audience)
 (3) 연극, 춤 또는 다른 형태의 공연을 행하는 행위: 공연(performance)
 (4) 어떤 것 또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비어 있는(empty)
- 04 '다른 나라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본국을 떠나는 사람'에 해당하는 단어는 emigrant(이민자, 이민 가는 사람)이다.
- 05 enthusiastic은 '열정적인, 열렬한'이라는 뜻으로 passionate와 바꿔 쓸 수 있다. 그녀는 활발하고 그녀가 하는 모든 것에 열정적이다.
 ① 혼란스러운 ② 완전한 ③ 즐거운 ⑤ 시간이 있는, 여유가 있는
- 06 remain: 계속[여전히] ~이다; 남아 있다
 • 의사는 내가 일주일 동안 침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종의 단지 몇 백마리가 오늘날 남아 있다.
- 07 「be supposed to + 동사원형」은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① 나는 지금 하루가 15시간인 것처럼 느껴진다!
 ② 되돌아보고 당신이 그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해 보세요.
 ③ 너는 이 일을 금요일까지 끝내야 한다.
 ④ 이것이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⑤ 경기가 끝났으므로 팬들은 떠나고 있다.

- 08 have trouble + 동명사: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 09 책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므로' 다시 서가에 갖다 놓겠다는 남자의 말에 잘못 가져다 놓으면 사람들이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북 카트에 책을 가져다 놓으라는 여자의 말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④ '저는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않아요.'는 대화의 흐름상 어색하다.
- 10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진 'You're not supposed to + 동사원형 ~.'을 이용해 영작한다.
- 11 남자가 수미의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으므로 ④ '남자는 가방을 들어 달라는 수미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수미는 어제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다.
 ② 수미는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약 한 달 동안 깁스를 해야 한다.
 ③ 남자는 수미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그녀를 도우려 한다.
 ⑤ 수미는 남자가 아주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 12 민수가 Brown 씨의 허리 상태를 묻고 이에 대해 많이 좋아졌다는 대답을 한 다음에 '(C) 다행이네요. 그나마 제가 점심을 가져왔어요. - (B) 정말 친절하구나. 네가 지난주 내 생일에 가져온 당근 케이크도 맛있었어. 고맙구나. - (A) 별말씀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더 있나요? - (E) 괜찮아. 나는 네가 여기 와 준 것만으로 기쁘단다. - (D) 음, 제가 천장에 있는 그릇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점심 드시고 나서 잠시 쉬고 계세요.'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3 '제가 ~하게 해 주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 「Let me + 동사원형 (for you) ~.」을 이용해 영작한다.
- 14 '제가 ~하게 해 주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 「Let me + 동사원형 (for you) ~.」은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안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 15 ㉠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built, gave와 병렬 관계이므로 giving out을 gave ou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6 NGO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NGO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류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⑤ education(교육)을 humanity(인류)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17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delayed를 쓰는 것에 유의한다.
- 18 관계대명사 where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the place가 생략된 것이므로 the place는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 마을은 당신이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19 (1) 「전치사 + 관계대명사」 at which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Charles는 그가 친구들과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체육관에 다닌다.
 (2) 「전치사 + 관계대명사」 on which는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나의 아버지는 유치원 졸업 선물로 큰 인형을 내게 주신 날을 기억하신다.
 (3)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와 선행사 the way는 둘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그 빵이 정말 맛있어서 그들이 빵을 굽는 방법을 알고 싶다.
 (4) 「전치사 + 관계대명사」 for which는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로 바꿔 쓸 수 있다.
 Jerry는 Luke가 Jay와 말다툼을 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 20 (1)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leaning이 적절하다.
 Emma는 숲에서 나무에 기댄 채로 서 있었다.
 (2)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brushed가 적절하다.
 나의 남동생은 보통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 TV를 본다.
- 21 두 문장에서 the yard는 장소를 나타내므로 관계부사 where이나 at which를 쓸 수 있다. 전치사 at은 관계사절 끝에 놓일 수 있고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지만 at which 대신에 at that의 형태로는 쓸 수 없다.
- 22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fixed가 적절하다.

- Nicholas는 눈을 천장에 고정한 채로 소파에 누웠다.
- 23 ㉠㉡는 '어디'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의문사이고, ㉢㉣㉤는 관계부사이다.
 ㉠ 나는 그가 여름 방학 동안에 어디를 여행했는지 궁금하다.
 ㉢ Jimmy는 나의 친구 Chris가 일했던 백화점에서 정장을 샀다.
 ㉣ 나는 내 오빠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야만 한다.
 ㉤ 내가 어젯밤 너에게 전화했을 때 네 스마트폰은 어디에 있었니?
 ㉥ 우리는 어제 Tom이 야구를 했던 공원에 갈 것이다.
- 24 어법상 옳은 문장은 ㉠㉡이다. ㉠㉡는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crossing을 crossed로, breaking을 brok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에서 '신발을 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므로 in을 o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다리를 끈 채 의자에 앉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Tom은 새 신발을 신은 채 달리고 있다.
 ㉥ 저 흰 새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날아갔다.
 ㉦ 그녀는 눈을 감은 채 K-pop을 듣고 있다.
 ㉧ 나는 TV를 끈 채 잠들었다.
- 25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는 「전치사 + 관계대명사」인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 26 문장의 주절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with + 명사 + 분사」 구문을 사용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with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름이 하늘을 덮은 어두운 날씨였다.
- 27 첫 번째 문장에서는 the treasure island, 두 번째 문장에서는 Sophia's garden이 선행사이므로 빈칸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 나는 James 왕이 보석을 숨기기 전까지 아무도 살지 않았던 보물섬이 있다고 들었다.
 • Jessy는 형형색색의 장미들과 크고 푸른 나무들이 자라는 Sophia의 정원을 봤다.
- 28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그녀의 꿈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하는 맥락이므로 ㉠ annoyed(짜증난)를 pleased(기쁜)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29 주어진 문장은 '되돌아보면, 자원봉사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뜻이므로 가르쳐 준 내용(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가르치는 기쁨을 경험함) 바로 앞인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0 ㉠ 선행사가 없고, 바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1 음성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주민 센터로 갔고, 녹음실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받고 운이 좋게 통과했다는 맥락이므로 ㉣ '나는 놀라운 것을 시도해 보고 싶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 32 책을 낭독하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 책을 만드는 것이므로 (B) spelling (철자)을 pronunciation(발음)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33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beating을 쓰는 것에 유의한다.
- 34 자신의 봉사 활동 경험을 설명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나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 '나와 같은 기쁨'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삶의 가치
 ③ 삶에서 가장 역동적인 것들
 ④ 상식의 중요성
 ⑤ 학교 활동의 흥미로운 부분
- 35 선행사가 사람이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주격 관계대명사 who[that]이다.
- 36 '~해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감정의 원인)이므로 see를 to see로 고쳐 써야 한다.
- 37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며, 「the + 형용사」는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38 주어진 문장은 '그 동아리는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므로 동아리에 가입했다는 내용 바로 뒤인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9 (A)는 앞문장의 an elementary school(초등학교), (B)는 앞문장의 wall(벽)을 가리킨다.
- 40 날씨가 덥긴 했지만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④ ‘언짢아하다, 상관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가다; 오다 ② 울다 ③ 떠나다 ⑤ 웃다
- 41 앞 문장의 ‘내가 놀랐던(I was amazed)’ 것보다 더 이전에 시작된 일이므로 과거완료 시제를 쓰는 것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 42 ㉔ That is why ~는 ‘그것이 바로 ~한 이유이다’라는 뜻으로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오며, That is because ~에서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온다. 따라서 because를 why로 고쳐 써야 한다.
- 43 (A) 한국에 이민 온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immigrants (immigrant: 이민자, 이민 오는 사람)가 적절하다. (emigrant: 이민자, 이민 가는 사람)
(B) 처음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날 몇몇이 ‘환영해요.’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는 맥락이므로 welcome(환영)이 적절하다. (heart: 마음)
(C) Kumari가 한글로 낱말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그녀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는 맥락이므로 joy(기쁨)이 적절하다. (sorrow: 슬픔)
- 44 주어진 문장은 ‘그러나 오빠가 나를 격려해 주었기에 한 번 해 보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이므로 항상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긴장했다는 내용 바로 뒤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45 enthusiastic은 ‘열정적인, 열렬한’이라는 뜻으로 passionate와 바꿔 쓸 수 있다.
① 혼란스러운 ② 가치 없는
③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④ 시간이 있는, 여유가 있는; 이용 가능한

수능형으로 끝내기

p.048-053

01 ③	02 ③	03 ②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⑤	09 ⑤	10 ②	11 ①	12 ①
13 ④	14 ③	15 ①	16 ③	17 ⑤	18 ④

- 01 주어진 문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으로 질문에 대답하는 문장이므로 ‘당신은 자원봉사가 어렵거나 따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바로 뒤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2 ㉔ 「ask + 목적어 + 목적격보어(to부정사)」 구문이므로 동사원형 help를 to부정사 to help로 고쳐 써야 한다.
- 03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긴장했지만 오빠가 나를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기로 결심했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② ‘그것을 시도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것을 포기하다
③ 그것을 주다
④ 하루를 쉬다
⑤ 시간을 잘 관리하다
- 04 ㉔ 「help + (목적어 +) 동사원형[to부정사)」 구문이므로 현재분사 making을 동사원형[to부정사] make[to make]로 고쳐 써야 한다.
- 05 자원봉사의 마지막 날 Kumari가 한글로 쓴 감사 편지와 함께 히말라야 홍차를 주었고, 여전히 Kumari와 전자 우편으로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⑤ ‘~와 연락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을 제거하다 ② ~을 이해하다 ③ ~을 참다, 견디다 ④ ~을 떠올리다
- 06 여전히 Kumari와 연락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는 내용이므로 ④ ‘나는 아이들을 위해 노래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 07 ㉔ 동명사(Working)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복수 동사 were를 단수 동사 was로 고쳐 써야 한다.
- 08 자원봉사 활동인 그림 그리기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처럼 느꼈다는 흐름이므로 ⑤ away(먼, 멀리)를 closer(더 가까이)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09 그림이 완성됐을 때 깜짝 놀랐으며, 공동 작업이 텅 비어 있던 벽을 아름답고 신나는 정원으로 바꿨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⑤ ‘공동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시스템, 체계 ② 전문 지식 ③ 신뢰성 ④ 공동체
- 10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경험담을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세상을 밝게 색칠하기’가 적절하다.
① 벽에 아름다운 이미지들
③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④ 무언가를 얻는 데 쉬운 방법은 없다
⑤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 11 (A) 선행사가 the day인 것으로 보아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이 적절하다.
(B) a student를 수식하고 Kumari라고 ‘불리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named가 적절하다.
(C) 「lead + 목적어 + 목적격보어(to부정사)」 구문이므로 to부정사 to keep이 적절하다.
- 12 주어진 문장은 ‘몇몇은 “환영해요.”라고 말했다.’라는 뜻으로 자원봉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날 학생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는 내용 바로 뒤인 ①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3 ㉔ 녹음실로 돌아온 것보다 테스트를 본 게 더 이전의 일이므로 과거 시제 took를 과거완료 시제인 had tak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4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면서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고, 긴장했지만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흐름이므로 (C) relaxed(편안한)를 nervous(긴장한)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15 주어진 문장은 ‘나는 운 좋게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의미로 it이 테스트를 가리키므로 테스트를 봤다는 문장 바로 뒤인 ①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6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책을 만드는 자원봉사 활동 경험담을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내 목소리로 기쁨 보내기’가 적절하다.
① 부정행위의 결과
② 도덕성의 개념
④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책임 분담하기
- 17 ㉔ 그녀가 책을 낭독하며 시각 장애인들을 돕는 것을 즐겼다는 흐름이므로 helps를 enjoy의 목적어인 동명사 reading과 병렬 관계를 이루도록 동명사 help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8 완성된 그림을 본 아이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표정을 보고 기뻐했다는 흐름이므로 ④ sad(슬픈)를 happy(행복한)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서술형으로 끝내기

p.054-056

01 ㉔ teaching ㉔ that	02 when
03 She bowed to me saying, “ <i>Namaste</i> ,” with her palms held together.	
04 ④ → understand	
05 (A) a wall-painting volunteer program that I got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B) When the picture was finished, I was amazed.
06 ⑤ → gathered	
07 Tony had been wet from the rain before he borrowed my umbrella.	
08 ⑤ → myself	09 (A) (p)ronunciation (B) (n)ervous
10 I hope more people will volunteer and experience the same pleasure I do.	

- 01 ㉔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teach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므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2 (A)에는 선행사 the da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when, (B)에는 '~할 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 적절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when이다.
- 03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saying과 「with + 명사 + 분사」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held)를 쓰는 것에 유의해 영작한다.
- 04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흐름이므로 ④ judge(판단하다)를 understand(이해하다)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05 (A) 선행사가 사물이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관계부사 where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으로 고쳐 써야 한다.
(B) 감정을 유발하는 타동사는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경우 과거분사를 쓰므로 현재분사 amazing을 과거분사 amazed로 고쳐 써야 한다.
- 06 자원봉사 활동으로 벽화를 그리고, 완성 후에 한 명 한 명 동네의 아이들이 그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는 흐름이므로 ⑤ scattered(scatter: 사방으로 흩어지다)를 gathered(gather: 모이다)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07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이전에 발생한 일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과거완료(had + 과거분사)를 이용해 영작한다.
- 08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므로 me를 재귀대명사 myself로 고쳐 써야 한다.
- 09 (A) '단어나 언어가 발음되는 방식'에 해당하는 단어는 pronunciation(발음)이다.
(B) '흥분되거나 걱정되는 또는 약간 두려움을 느끼는'에 해당하는 단어는 nervous(긴장한)이다.
- 10 13단어로 영작해야 하므로 the same pleasure 뒤에 as를 생략하고, do a experience를 대신하는 동사로 쓰이는 것에 유의해 영작한다.

- 23 On the last day, she gave me Himalayan black tea with a thank you note written in Korean.
- 24 I still get in touch with Kumari through email.
- 25 Looking back, the volunteering experience taught me a lot.
- 26 I came to understand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better.
- 27 Also, I experienced the joy of teaching.
- 28 Next vacation, I want to go back to the center and feel that joy again.
- 29 I love drawing.
- 30 My dream i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rough my paintings.
- 31 When I became a high school student, I joined an art club.
- 32 The club ran a wall-painting volunteer program that I got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 33 Last Saturday was "volunteering day."
- 34 We went to an elementary school in a small town.
- 35 Its wall was white and clean.
- 36 Actually, some other volunteers had already painted it white.
- 37 The wall looked like a big canvas.
- 38 First, some people made sketches, and then others painted them.
- 39 The theme of the painting was "Garden of Dreams."
- 40 I painted some butterflies, honey bees, and flowers.
- 41 Working as a group was a lot of fun.
- 42 Although it was hot, we did not mind.
- 43 We tried our best to complete the picture.
- 44 When the picture was finished, I was amazed.
- 45 Our collaboration had turned the empty wall into a beautiful, exciting garden.
- 46 One by one, the little children of the town gathered to see the picture.
- 47 They looked so happy.
- 48 I was delighted to see their happy faces.
- 49 I felt like I was one step closer to my dream.
- 50 I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volunteering, but I did not know what I could do.
- 51 One day, when I was watching TV, I learned about "voice volunteering."
- 52 It meant making audio books for the blind by reading the books aloud.
- 53 I said to myself, "That's what I've been looking for!"
- 54 The next day I went to the community center and took a quick test in the recording room.
- 55 Luckily, I passed it.
- 56 A few days later, I came back to the recording room where I had taken the test.
- 57 I got some training on accurate pronunciation before recording.
- 58 My first job was to read a history book for high school students.
- 59 I started reading the book with my heart beating very fast.
- 60 I was very nervous but tried my best to read naturally.
- 61 Even though I made some mistakes, I successfully finished my first recording.
- 62 My recorded voice sounded a little strange to me.
- 63 But the recording manager said that I had done well.
- 64 Since then, I have been doing volunteer work once a week.
- 65 I am enjoying reading the books more and more.
- 66 Plus, I take joy in helping the blind.
- 67 I hope more people will volunteer and experience the same pleasure I do.

R 교과서 핵심 | **본문 다시 쓰기**

p.057-061

- 01 Many people around us are in need of help.
- 02 That is why volunteer work is necessary.
- 03 Do you think volunteering is difficult or boring?
- 04 It is not the case.
- 05 Let's meet three young volunteers and read their stories.
- 06 At the beginning of summer vacation, my brother asked me to help him at a community welfare center.
- 07 He was a volunteer teaching Korean to immigrants at the center.
- 08 I was interested but was not sure I could do it.
- 09 I had always felt nervous about meeting people from other countries.
- 10 However, my brother encouraged me, so I decided to give it a try.
- 11 On the day when I first started volunteering, the students gave me a warm welcome.
- 12 Some said, "Hwan-yeong-hae-yo."
- 13 My brother introduced me to the class and asked me to help a student named Kumari.
- 14 She came from Nepal.
- 15 She bowed to me saying, "Namaste," with her palms held together.
- 16 When I helped her write down words in Korean, her eyes lit up with joy.
- 17 She was enthusiastic about learning Korean, and I felt great joy in teaching.
- 18 This led me to keep coming back to class.
- 19 Soon we became friends and learned more about each other.
- 20 She said she was learning Korean to read books to her son.
- 21 I was pleased that I could help make her dream come true.
- 22 When the vacation finished, I could not do the volunteer work any longer.

06 Pack Up and Go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64

- 01 ② 02 (1) sled (2) float (3) costume (4) land (5) handicraft
03 ④ 04 ②

- 01 ②는 '현대적인 : 구식의'라는 뜻으로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특정 지역이나 시대의) 의상, 복장 ③ 전시하다 ④ 의심 ⑤ 박수를 치다
- 02 (1) 썰매: 눈 위를 다니기 위해 타는 이동 수단
(2) 떠오르다: 액체의 표면 위에 머무르고 가라앉지 않다
(3) 의상, 복장: 특정한 나라나 역사의 시기의 전형적인 또는 특정한 활동에 적합한 옷
(4) 착륙하다: 공중에서 내려와 지상이나 다른 표면에 도착하다
(5) 수공예품: 전통적인 방식으로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
- 03 trail: 오솔길; 자국, 자취, 흔적
• 그녀는 자전거를 끌고 오솔길을 올라가고 있다.
• 우리는 이름과 신용 카드 정보와 같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의 흔적을 여러 웹 사이트에 남긴다.
① 연락선,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 ② 정신, 영혼
③ 빌리다; 임차로, 짐세 ⑤ (기차·비행기·호텔 등을) 예약하다; 책
- 04 <보기>와 ①③④⑤는 '흔들리다, 흔들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②는 '파도'라는 의미로 쓰였다.
<보기> 나는 흔들리는 초보를 볼 때 편안함을 느낀다.
① 그 배는 심하게 흔들렸다.
② 태풍 때문에 큰 파도가 쳤다.
③ 그는 한국 독립을 외치고 국기를 흔들었다.
④ 사진 속의 손을 흔드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⑤ 뒤돌아보니 나의 어머니는 여전히 손을 흔들고 계셨다.

C 교과서 핵심 대화

p.065~066

- 01 ④ 02 forget to change

- 01 '~에 가 본 적이 있나?'라는 뜻의 「Have you (ever) been (to) ~?」에 대한 대답은 긍정일 때 Yes, I have., 부정일 때 No, I haven't.이다. 빈칸 뒤에 '정말 낭만적이었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긍정적인 표현인 ④ '응, 나는 가 본 적이 있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2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 「Don't forget to + 동사원형 ~.」을 이용해 영작한다.

C 교과서 기타 대화

p.067

- 01 F 02 T

- 01 전설에 따르면 사령관이 전쟁 후에 그의 아내와 함께 두 바위를 조각했다.
02 남자는 유미의 도움을 받아 일반석 기차표를 예약하려 하고 있다.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68

- 01 ⑤ 02 ④

- 03 ③ have you ever been to Uyuni desert
⑤ Don't forget to bring a good camera.

- 01 여자의 질문에 대한 남자의 대답이 No, I haven't.이므로 빈칸에는 특정한 장소에 가 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 「Have you (ever) been (to) ~?」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줄 수 있니?
② 나는 조만간 그곳에 가 볼 생각이야.
③ 그곳에 왜 가 보고 싶니?
④ 카메라 챙기는 걸 잊지 마.
⑤ 너는 그곳에 가 본 적이 있니?
- 02 센트럴 파크에 가 본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친절하구나.'라는 대답은 자연스럽지 않다.
① A: 여권 챙기는 거 잊지 마.
B: 친절하게 기억시켜줘서 고마워.
② A: 밖에 구름이 많아.
B: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
③ A: 제주도에도 가 본 적이 있니?
B: 응. 그곳은 매우 아름다웠어.
⑤ A: 내일 있을 수확여행이 기대워.
B: 수건 챙기는 거 잊지 마. 호텔에서 그것들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 03 특정한 장소에 가 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 「Have you (ever) been (to) ~?」와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의미로 상기시켜 주는 표현 「Don't forget to + 동사원형 ~.」을 이용해 영작한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p.069~070

- 01 (1) ○ (2) (should) study 02 was not

- 01 (1) 동사 recommend(권고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한다.
나의 상사는 당장 간부 회의를 소집할 것을 권고했다.
- (2) 동사 ask(요구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한다.
그 교장 선생님은 여름 방학 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것을 요구했다.
- 02 as if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was not이다.
그는 마치 그 방에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1

p.071

- 01 (1) apply (2) should finish (3) was late (4) had
02 (1) should (2) be
03 (1) escape → (had) escaped
(2) focused → (should) focus
(3) came → (should) come
(4) investigate → investigated

- 01 (1) 동사 propose(제안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한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그 대학교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다.
- (2) 동사 require(요구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한다.
나의 상사는 그가 내일까지 그의 일을 끝마칠 것을 요구했다.
- (3) insist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문장의 시제에 따라 과거 시제 was late가 적절하다.
그녀는 동아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의에 늦었다고 주장했다.

(4) suggest가 '시사[암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의 시제에 따라 과거 시제 had가 적절하다.

그 증거는 그의 이론이 치명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02 (1) 동사 propose(제안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should가 적절하다.

그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안전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2) 동사 recommend(권고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should가 생략되고 be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그녀는 우리가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03 (1) insist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문장의 시제에 따라 과거 시제(escaped) 또는 과거완료 시제(had escaped)로 고쳐 써야 한다. 그녀는 어젯밤에 그 사고에서 간신히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2) 동사 demand(요구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한다. 따라서 (should) focus로 고쳐 써야 한다.

그는 학생들이 역사 수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 동사 command(명령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한다. 따라서 (should) come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내일 8시까지 등교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4) suggest가 '시사[암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의 시제에 따라 과거 시제 investigated로 고쳐 써야 한다.

그 기사는 작가가 1년 전에 그 문제에 관해 많이 조사했음을 암시한다.

G 교과서 핵심 | **문법 확인 문제 2**

p.072

- 01** (1) were Jane's family doctor
 (2) she had spoiled the last month party
 (3) were a soccer player in the big league
 (4) had more focused on the test
- 02** (1) is not a president (2) did not see a ghost
 (3) was not my mother
- 03** (1) Jason is kind to the professor as if he liked him.
 (2) My daughter avoids my eyes as if she had broken my smartphone.
 (3) The boy is proud of his sister as if she had won the contest.

01 (1) as if 가정법 과거(as if[though] + 주어 + 동사의 과거형)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2) as if 가정법 과거완료(as if[though] + 주어 + 과거완료)로 과거보다 더 이전의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3) I wish 가정법 과거(I wish (that) + 주어 + 동사의 과거형)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4) I wish 가정법 과거완료(I wish (that) + 주어 + 과거완료)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02 (1) as if 가정법 과거이므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동사의 현재형 is not을 쓴다.

그는 계속해서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

(2) as if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동사의 과거형 did not see를 쓴다.

너는 마치 유명이라도 봤던 것처럼 보인다.

(3) as if 가정법 과거이고 주절의 동사가 과거이므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동사의 과거형 was not을 쓴다.

그녀는 마치 내 어머니인 것처럼 말했다.

03 (1) 주절이 현재이며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므로 as if 가정법 과거로 동사의 과거형 lik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Jason은 마치 그 교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에게 친절하다.

(2) 주절이 현재이며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므로 as if 가정법 과거완료로 과거완료 had broken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나의 딸은 마치 나의 스마트폰을 고장냈던 것처럼 내 눈을 피한다.

(3) 주절이 현재이며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므로 as if 가정법 과거완료로 과거완료 had won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 소년은 그의 여동생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것처럼 그녀를 자랑스러워한다.

R 교과서 기타 | **지문**

p.077

01 F 02 F

01 필자는 남이섬에서 TV 쇼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했다.

02 상민이는 이번을 포함해 그린란드에 세 번 방문했다.

R 교과서 핵심 | **본문 다지기**

p.078-079

- | | | | |
|----------------|-----------------|-----------------|---------------|
| 01 was sent | 02 who | 03 living | 04 see |
| 05 land | 06 buildings | 07 (탈 것에서) 내리다 | |
| 08 clapping | 09 what | 10 celebrating | 11 refreshing |
| 12 looked | 13 was made | 14 ~와 같은 | 15 having |
| 16 go | 17 ~로 가는 길[도중]에 | | 18 that |
| 19 were | 20 made | 21 are | 22 Using |
| 23 ~로 향하다 | 24 that | 25 시선[눈길]을 사로잡다 | |
| 26 a road sign | 27 passing | 28 snowy enough | |
| 29 What | 30 approached | 31 floating | 32 big |
| 33 Leaving | 34 get | 35 자리를 잡다 | 36 waiting |
| 37 doubt | 38 waving | 39 changing | 40 were |
| 41 what | 42 saw us off | 43 이륙하다 | 44 암시하다 |
| 45 living | | | |

T 내신 1등급 대비 **1회**

p.080-091

- 01** ㉠ **02** ㉡ **03** ㉠ **04** (s)led
- 05** (1) approach (2) clap (3) flat (4) remain **06** ㉢ **07** off
- 08** ㉡ **09** ㉡ **10** ㉡
- 11** Grandpa Rock must be the commanding officer **12** ㉡
- 13** don't forget to select economy class **14** ㉣ **15** ㉡
- 16** ㉣ **17** ㉣ **18** suggested, (should) drink **19** ㉣
- 20** (1) came back[had come back] (2) ○ **21** ㉣ **22** ㉢
- 23** ㉣
- 24** Greenland may not be as "green" as the name suggests.
- 25** living **26** ㉡ **27** ㉡ **28** ㉣
- 29** the world's biggest mailbox **30** am → were
- 31** ㉣ → doubt **32** got → get **33** ㉡ **34** ㉠
- 35** Their beauty was far beyond what I had imagined from the photos Dad had shown me.
- 36** ㉢ **37** ㉡ **38** ㉡ **39** ㉡ **40** ㉡ **41** ㉡
- 42** ㉡ **43** a traditional Greenlandic stew
- 44** While they had dinner
- 45** they suggested that we go to the National Museum of Greenland together

01 ㉢은 '짐을' 싸다 : '꺼내다'라는 뜻의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 (기차·비행기·호텔 등을) 예약하다 ㉡ (수면에) 떠오르다

㉣ 전시; 전시하다

㉡ 맛

- 02 ⑤의 영영풀이는 '좌우로 부드럽고 약하게 움직이다'로 wave(흔들리다)에 해당한다. insist(주장하다, 고집하다)의 영영풀이는 to say firmly or demand forcefully, especially when others disagree with or oppose what you say(특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는 것에 반대할 때 단호하게 말하거나 강력하게 주장하다)이다.
- ① 충실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계속 지지하거나 친구가 되는
 - ② 역동적인: 많은 에너지와 결실을 지니고 아주 활발하거나 열정이 넘치는
 - ③ 목적지: 누군가가 가거나 무언가가 전달되거나 받아지는 장소
 - ④ 보리(곡류): 음식, 맥주, 위스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곡물을 생산하는 식물
- 03 '~으로 변화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turn into이다.
- ① 올챙이는 최종적으로 개구리로 변한다.
 - ②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에 왔다. (see off: ~을 배웅하다)
 - ③ 나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 ④ 나는 그 트렌치코트가 그에게 잘 어울릴지 궁금하다. (look good on: (복장 등이) ~에게 잘 어울리다)
 - ⑤ 그것은 당신 바로 뒤에 있어요. 뒤돌아서서 위를 쳐다보세요. (look up: (위를) 올려다보다)
- 04 '눈이나 얼음 위를 다니는 데 사용되며 밑에 바퀴 대신 나무나 철의 길고 좁은 조각이 붙어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단어는 sled(썰매)이다.
- 05 (1) 공간, 시간, 질 또는 양에 있어서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다가가다(approach)
- (2) 손을 함께 부딪쳐 짚고 큰 소리를 내다: 박수를 치다(clap)
 - (3) 높은 부분이나 자국 없이 평평한 표면 가진: 평평한(flat)
 - (4) 같은 공간에 또는 같은 상태로 유지하다: 남아 있다(remain)
- 06 grand는 '웅장한: 위대한'이라는 뜻으로 magnificent와 바꿔 쓸 수 있다. 혜성은 하늘에서 웅장한 꼬리를 드러낸다.
- ① 구식의 ② 역동적인 ④ (날씨가) 쌀쌀한 ⑤ 점진적인
- 07 get off: (탈 것에서) 내리다
take off: (비행기 등이) 이륙하다
- 708번 버스를 타서 다섯 번째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 기상 상황이 나아져서 모든 비행기들이 정시에 이륙할 예정이다.
- 08 <보기>와 ①②③④의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⑤는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보기> 동물원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새끼 판다를 위한 이름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 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셨다.
 - ② 그는 자신의 집에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 ③ 그녀는 우리에게 외식하자고 제안했다.
 - ④ 영리한 아이들은 시험을 일찍 봐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 ⑤ 두 보고서의 비슷함은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썼다는 것을 암시한다.
- 09 (A) 감각동사 look은 형용사를 보어로 가지므로 fantastic이 적절하다.
(B) '너는 거기에 가 본 적이 있니?'라는 표현은 Have you ever been there?로 쓴다. gone(go의 과거분사)은 '가버렸다(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C) 선행사 an ice cream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 10 여자가 녹차 아이스크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고 언급했으므로 ⑤ '남자는 사진에서 녹차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있다.'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그들은 녹차밭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다.
 - ② 여자는 지난 휴일 친구들과 함께 보성에 갔다.
 - ③ 남자는 보성 녹차밭에 가 본 적이 없다.
 - ④ 여자는 햇볕이 너무 강해서 모자를 썼다.
- 11 '~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must be이다.
- 12 안면도의 꽃지 해변에 있는 '할배바위'와 '할배바위'의 유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제목으로는 ⑤ '할배바위와 할배바위의 유래'가 적절하다.
- ① 전쟁과 기다림의 고통
 - ② 아름다운 해변: 전쟁의 승리

- ③ 안면도의 역사적 가치
 - ④ 외로운 섬: 강렬한 사랑 이야기
- 13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Don't forget to + 동사원형 ~.」을 이용해 영작한다.
economy class: 일반석
- 14 남자가 오후 7시 30분쯤에 출발하고 싶다고 언급했고, 오후 7시 30분 출발 기차를 예매했으므로 ④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5 짐을 싸는 것을 끝냈는지 묻는 엄마의 말 다음에 (B) 네, 엄마. 저는 여행에서 입을 옷들을 모두 썼어요. - (D)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불고 쌀쌀할지 몰라. 가벼운 재킷도 썼니? - (C) 네, 그렇게 했어요. 만약을 대비해, 수건도 몇 장 챙길까요? - (A) 아니, 틀림없이 리조트에서 그것들을 제공할 거야. 아, 카메라 챙기는 것을 잊지 마. - (E) 네, 엄마. 지금 바로 가방에 그것을 넣을게요.'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6 ④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Don't forget to + 동사원형 ~.」이므로 packing을 to pack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7 말했던 것(과거)보다 중국에 살아 봤던 것(실제로 중국에 살지는 않았음)이 더 이전이므로 과거보다 더 이전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인 as if 가정법 과거완료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주절의 시제를 과거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 18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suggest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로 쓴다.
- 19 ①②③은 as if 가정법 과거이므로 과거형 were가 적절하고, ④는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propose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인 be가 적절하고, ⑤는 suggest가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주절의 시제에 따라 과거형 were가 적절하다.
- ① 그녀는 마치 미국인처럼 영어를 한다.
 - ② John은 그의 강아지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말한다.
 - ③ 나의 여동생은 자신이 마치 유명 인사인 것처럼 행동한다.
 - ④ 선생님은 내가 연극에서 Juliet을 할 것을 제안하셨다.
 - ⑤ 그 증거는 그 용의자들이 유죄라는 것을 암시했다.
- 20 (1) 동사 insist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that절의 동사 come은 문장의 시제에 따라 과거 came back이나 과거완료 had come back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들은 그 학생이 지난 수요일 일찍 집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2) suggest가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that절의 동사는 문장의 시제에 따른다. '오랫동안 그를 사랑해 왔다'는 흐름이므로 현재완료(has[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그녀의 말은 그녀가 오랫동안 그를 사랑해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 21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며 그보다 더 이전의 사실(말했던 것보다 스카이다이빙을 했던 것이 더 이전의 일, 실제로 스카이다이빙을 하지는 않았음)과 반대되는 내용은 as if 가정법 과거완료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had skydived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Jamie는 그의 여자 친구와 유럽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던 것처럼 말했다.
- 22 어법상 옳은 것은 ㉠㉡이다. ㉠㉡은 각각 제안, 요구, 충고를 나타내고 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한다. 따라서 goes를 go로, studied를 study로, appointed를 appoint로 고쳐 써야 한다.
㉢ 의사는 그에게 다이어트를 할 것을 제안했다.
㉣ 선생님은 우리에게 수업 동안 열심히 공부할 것을 요청했다.
㉤ 그는 내가 지금 바로 교실을 돌아가야 한다고 명령했다.
㉥ Jake는 회의가 즉시 소집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그는 사장이 Kate를 비서로 임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23 그린란드의 웅장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봤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강인한 정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는 흐름이므로 ㉠ sense of rivalry(경쟁심)를 spirit(정신)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24 '~만큼 ...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 「as + 형용사[부사]의 원급 + as」에 의하여 영작한다.
- 25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므로 능동의 현재분사 living이 적절하다.

- 26 주어진 문장은 '실제로 그것은 진짜 우체통이었다!'라는 뜻이므로 우체통처럼 보이는 붉은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는 내용 바로 뒤인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7 그린란드의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의 지혜와 강인한 투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흐름이므로 ㉔ friendly(친근한)를 harsh(가혹한)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28 선행사가 사물(a red building)이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빈칸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9 밑줄 친 It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the world's biggest mailbox를 가리킨다.
- 30 as if 가정법 과거이므로 am을 과거형 were로 고쳐 써야 한다.
- 31 어떤 조짐도 없이 수 시간이 흘러서 북극광을 볼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흐름이므로 ㉔ believe(믿다)를 doubt(의심하다)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32 주장을 나타내는 동사 insist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면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오므로 과거형 got을 동사원형 ge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3 (B)에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 (C)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적절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that이다.
- 34 주어진 문장은 '약간의 불빛들이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저 위를 봐!"라고 엄마가 외치신 다음인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5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과 과거완료(had + 과거분사)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36 항구에서 배를 타고 빙산들을 봤고, 빙산들은 우리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㉔ talkative(수다스러운)를 speechless(말문이 막힌)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37 주어진 문장은 '가장 먼저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썰매 그림이 있는 도로 표지판이었다.'라는 뜻으로, 표지판을 보고 Nielsen 씨에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8 (A) 선행사 many touris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적절하다.
(B) 개 썰매가 '통과하는' 것이므로 능동의 현재분사 passing이 적절하다.
(C) approach는 '다가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to)를 쓰지 않는다.
- 39 빙산들이 녹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모양으로 천천히 변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므로 빈칸에는 ㉔ '우리는 같은 모양의 빙산들을 결코 두 번 볼 수 없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항상 그것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 있다
③ 그것들로부터 지구 온난화가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바다 밑에는 훨씬 더 큰 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빙산의 녹는점이 강의 어는점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0 장거리 비행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는 흐름이므로 ㉔ take off(이륙하다)를 get off(내리다)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41 (B)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 42 주어진 문장은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가자 Nielsen 부인과 그들의 아들 Joas가 "티킬루아릿"이라고 말했다.'라는 뜻이므로 바로 뒤에서 티킬루아릿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43 밑줄 친 it은 앞에서 언급한 a traditional Greenlandic stew를 가리킨다.
- 44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하면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 while로 시작하는 부사절로 바꿔 쓸 수 있다.
- 45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suggest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오는 것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13 ㉔ 14 ㉔ 15 ㉔ 16 ㉔
- 17 don't forget to pack the camera
- 18 Despite losing the election, he continues to act as if he were a prime minister.
- 19 ㉔ 20 ㉔ 21 propose, should wait 22 ㉔
- 23 (1) be (2) ○ 24 saw → had seen 25 ㉔ 26 ㉔
- 27 ㉔ 28 ㉔ 29 동물 뼈와 뿔을 사용해서 30 ㉔
- 31 It was sent by Erik Nielsen, who is Dad's close friend living in Greenland.
- 32 ㉔ 33 ㉔ 34 they were clapping their hands
- 35 (m)odern 36 ㉔ 37 ㉔ 38 ㉔ 39 ㉔
- 40 ㉔ 41 which(that)
- 42 It will always remain in my memory as a dynamic and colorful place to visit.
- 43 meant → means
- 44 What we saw as we approached them left us speechless. 45 ㉔

- 01 ㉔는 '점차, 점진적으로: 갑자기'라는 뜻의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특정 지역이나 시대의) 의상, 복장 ② 평평한 ③ 박수를 치다 ⑤ 의심
- 02 ㉔의 영영풀이는 '어떤 사람의 특별한 생각, 느낌, 행동 방식'으로 spirit(정신, 영혼)에 해당한다. wisdom(지혜)의 영영풀이는 the ability to use your knowledge and experience to make good decisions and judgments(좋은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① 곡류, 곡식: 쌀과 밀처럼 풀과 같은 식물에서 나온 씨앗
② 녹다, 녹이다: 고체를 부드러운 것이나 액체로 바꾸다
③ 맛: 음식이나 음료가 가진 특정한 맛
⑤ 임차료, 집세: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집, 방, 사무실 등을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액
- 03 ㉔ take off는 '(비행기 등이) 이륙하다'라는 뜻이다.
① 그녀는 Tim의 생일 파티에 가는 길이었다. (on one's way to: ~로 가는 길[도중]에)
② 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게 가져다 주세요. (bring A to B: A를 B에게 가져오다)
③ 그들은 폭우로 인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다고 말했다.
④ 신문에 따르면 오늘 날씨가 추울 것이다. (according to: ~에 따르면)
⑤ 서점에서 책 한 권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catch one's eye: 시선[눈길]을 사로잡다)
- 04 overcome은 '극복하다'라는 뜻으로 get over와 바꿔 쓸 수 있다. 우리의 면역 체계는 대부분의 나쁜 세균을 극복할 수 있다.
① 발생하다 ② (위를) 울려다보다: ~을 찾다
④ 자리를 잡다; 설치하다 ⑤ ~으로 변하다
- 05 see off: ~을 배웅하다
get off: (탈 것에서) 내리다
•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역에 모였다.
• 제가 어느 지하철역에서 내려야 하나요?
- 06 (1) 가방이나 용기 안에 넣었던 것들을 꺼내다: 꺼내다(unpack)
(2) 불쾌할 만큼 많이 추운: 쌀쌀한(chilly)
(3) 특히 나무나 돌에 조각하여 무언가를 만들거나 돌, 나무 등의 표면에 조각하다: 조각하다, 깎아서 만들다(carve)
(4) 대기에서 하강하여 땅이나 다른 표면에 도착하다: 착륙하다(land)
- 07 <보기>와 ㉔③⑤는 '양·수준 등을 올리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㉔는 '자금을 모으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보기> 운전 가능 연령이 16세에서 18세로 올라가야 하는가?
① 나는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
② 그들은 제시 가격을 1,000달러로 올렸다.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p.092~103

01 ㉔	02 ㉔	03 ㉔	04 ㉔	05 off
06 (1) unpack (2) chilly (3) carve (4) land	07 ㉔			
08 (d)oubt 09 to select	10 ㉔	11 ㉔	12 ㉔	

- ③ 그들의 임대가 만료되어서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달라고 한다.
 ④ 그 캠페인을 위해 어떻게 모금했나?
 ⑤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들은 광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08 '무언가에 대해 확실하거나 확신하지 않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doubt(의심하다)이다.
- 09 '무리에서 누군가나 무언가를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는 select인데, '~할 것을 잊지 마.'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to select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 10 기차는 오후 7시 30분에 출발해 오후 9시 43분에 도착 예정이므로 여행이 3시간 이상 걸린다는 내용의 ⑤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남자는 기차표 예약과 관련하여 유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② 남자는 KTX를 타고 나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③ 여행 출발일은 9월 10일이다.
 ④ 남자는 KTX의 일반석을 예약하고 싶어 한다.
- 11 올라가기는 힘들었지만 눈 덮인 산의 경치는 훌륭했다는 흐름이므로 ③ awful (끔찍한)을 magnificent(훌륭한)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12 주어진 문장은 '거기에 가 본 적이 있니?'라는 과거의 경험을 묻는 말로 가 본 적이 없다고(No, I haven't.) 말하는 M의 말 앞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3 ⑤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렀는지는 대화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대답할 수 없다.
 ①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② 남자는 거기에 전에 가 본 적이 있는가?
 ③ 여자는 왜 큰 모자를 썼는가?
 ④ 여자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⑤ 여자는 거기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 14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Don't forget to + 동사원형 ~.」으로 써야 하므로 raising을 to raise로 고쳐 써야 한다.
- 15 카메라 렌즈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고, 이에 대해 알겠다고 했으므로 지금 바로 가방에 넣지 않겠다는 ⑥는 대화의 흐름상 어색하다.
- 16 수건은 리조트에서 제공할 것이므로 챙길 필요가 없다고 했으므로 ⑤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 17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Don't forget to+동사원형 ~.」을 이용해 영작한다.
- 18 as if 가정법 과거를 활용하고, despite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것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19 주장, 요구, 제안, 명령 등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낼 때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하므로 ⑤의 took를 (should) take로 고쳐 써야 한다.
 ① Jane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② 의사는 내가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③ 엄마는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셨다.
 ④ 내 친구는 내가 내 차를 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⑤ 그의 형은 그에게 지하철을 탈 것을 권했다.
- 20 as if 가정법 과거완료 형태이며 주절이 과거이므로 과거보다 더 이전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의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다.
 Josh는 마치 자신이 연못에 돌을 던졌던 것처럼 행동했다.
 ③ 사실 Josh는 연못에 돌을 던지지 않았다.
- 21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propose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한다.
- 22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로 as if 가정법 과거이고, 가정법 과거에서 if절의 be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주로 were를 쓴다.
 • 그녀는 내가 마치 야수인 것처럼 나를 노려봤다.
 • 그 소년은 마치 어떤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보였다.
- 23 (1) 충고를 나타내는 동사 advise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낼 때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하는데 이때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 따라서 am을 (should) be로 고쳐 써야 한다.
 그녀는 나에게 책을 한 권 사주었고, 내가 그녀의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충고했다.

- (2)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시사[암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경우 that절에 should를 쓰지 않고 문장의 시제에 따른다. 따라서 과거 시제인 committed는 적절하다.
 그 증거는 다른 누군가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시사한다.
- 24 과거에 말한(talked) 것보다 귀신을 본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as if 가정법 과거완료로 써야 한다. 따라서 과거형 saw를 과거완료 had se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Penny는 그녀가 유령을 봤던 것처럼 말했다.
- 25 어법상 옳은 것은 ㉠㉡㉢이다. ㉠㉡는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낼 때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하므로 각각 took를 (should) take로, is를 (should) be로 고쳐 써야 한다.
 ㉠ 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매일 1,600밀리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제안했다.
 ㉢ 나는 그 회의가 미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그는 그녀가 늦은 것에 대해 나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마일로 권고되었다.
- 26 선행사가 the Inuit로 복수이므로 단수 동사 is를 복수 동사 are로 고쳐 써야 한다.
- 27 우체통처럼 보이는 붉은 건물을 올려다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B) looked down을 looked up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28 그린란드에 방문한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 「《걸리버의 여행기》의 주인공인 Lemuel Gulliver는 서술자이기도 하다.」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 29 Using 앞에 by가 생략된 형태로 '~함으로써, ~해서'로 해석한다.
- 30 주어진 문장은 '그는 우리 가족 모두를 초대했고, 우리는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그'는 아빠의 친구 Nielsen 씨를 가리키므로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1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o와 수동태, 그리고 live의 현재분사 living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32 장시간 비행 후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 안전한 도착을 축하하는 오랜 전통이라는 흐름이므로 ④ departure(출발)를 arrival(도착)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33 (A) such + a[an] + 형용사 + 명사
 (B) 지각동사 notic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를 쓸 수 있다.
 (C) 요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수동형 was made가 적절하다.
- 34 관계부사 why 앞에는 선행사 the reason이 생략되었고, 뒤에는 '그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는지'에 해당하는 they were clapping their hands가 생략되었다.
- 35 '가장 최근의 생각과 방법을 이용해 고안되거나 만들어진'에 해당하는 단어는 modern(현대적인)이다.
- 36 이 글의 밑줄 친 suggested와 ①②③④는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⑤는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①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제안하는가?
 ② 그는 우리에게 호텔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
 ③ 그들은 계속 내 체중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④ 치료사는 Tony가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⑤ 그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 37 Nielsen 씨가 필자의 가족을 공항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언급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38 ㉠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이므로 단수 명사 place를 복수 명사 places로 고쳐 써야 한다.
- 39 척박한 환경인 그린란드에서 사는 원주민들의 강인한 정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흐름이므로 (E) foreign(외국의)을 native(원주민의, 토박이의)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40 주어진 문장은 '풍경은 같아 보였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들었다.'라는 뜻으로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그린란드를 다시 내려다봤다는 내용 바로 뒤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41 선행사 the photo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that]가 생략되었다.
- 42 빈도부사의 위치(조동사와 일반동사의 사이)와 전치사로 쓰인 as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43 종속절의 내용('ilulissat'라는 말이 그린란드어로 빙산들을 뜻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키지 않고 현재 시제로 쓴다.
- 44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과 전치사(to)를 쓰지 않는 타동사 approach(다가가다)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45 주어진 문장은 '그것은 우리가 같은 모양의 빙산들을 결코 두 번 볼 수 없다는 뜻이다.'라는 뜻으로 Nielsen 씨가 빙산들이 녹으며 매일 모양이 변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녹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 바로 뒤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수능형으로 끝내기

p.104~109

01 ③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③
07 ①	08 ④	09 ②	10 ④	11 ②	12 ④
13 ④	14 ③	15 ④	16 ②	17 ③	18 ⑤

- 01 주어진 문장은 '그때부터 나는 내 눈으로 북극광을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그때'는 가족 모두가 그린란드에 가기로 결정한 것을 가리키므로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2 ㉠ 「지각동사(notice)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현재분사(동사원형))」 구문이므로 to clap을 clapping[clap]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3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객들이 박수를 치는 것은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축하하는 오랜 전통이라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② '안전한 도착을 축하하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유명 인사를 마주치는 ③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는
 ④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⑤ 죽어가는 누군가를 구하는
- 04 ㉠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suggest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한다. 따라서 are going을 (should) go로 고쳐 써야 한다.
- 05 Nielsen 씨의 집에서 채소와 곡물이 들어간 고래 고기로 만들어진 그린란드 전통 스투를 먹었다는 내용이므로 ③ '곡물의 수확량이 작년보다 더 좋았다.'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 06 Nielsen 씨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린란드 전통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다고 언급했으므로 필자의 심경으로는 ③ '호기심 있는'이 적절하다.
 ① 걱정하는 ② 낙담한 ④ 당황스러운 ⑤ 안타까운
- 07 (A) 선행사 a red building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B) 주절 동사가 과거이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므로 as if 가정법 과거의 과거형 were가 적절하다.
 (C) 의미상 '~함으로써(by + 동명사)'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문장 맨 앞에 By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Using이 적절하다.
- 08 이누이트족이 만든 의상, 도구 등을 통해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의 지혜와 강인한 투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④ '가혹한 환경을 극복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가까스로 살아남다
 ② 최신 기술을 이용하다
 ③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다
 ⑤ 빨리 보상을 받다
- 09 나는 Neilsen 씨 가족과 함께 그린란드 국립 박물관으로 갔고, 가는 길에 추위로부터 우편물을 보호하기 위한 (a)거대한(huge) 우체통을 보았다. 우리는 그 박물관 안에서 이누이트족의 여러 도구들을 보았고, 그들이 (b)극한의(extreme)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가졌던 지혜와 투지를 느꼈다.
 ① 거대한 차분한 ③ 거대한 온화한
 ④ 좁은 적당한 ⑤ 제한된 무딘
- 10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에 갔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④ '여행'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프로젝트 ② 추정 ③ 공동 작업 ⑤ 시험
- 11 북극광을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들 중 하나인 마지막 목적지 캥에를루수아크(Kangerlussuaq)에 도착한 다음에 일찍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Nielsen 씨의 말

이 나오는 (B)가 이어지고, 북극광을 볼 수 있을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A)가 온 다음, 북극광이 아빠가 보여 주신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2 날이 어두워진 이후에는 북극광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흐름이므로 ④ before (~ 이전에)를 after(~ 이후에)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13 주어진 문장은 '나는 Nielsen 씨에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었다.'라는 뜻으로 Nielsen 씨가 대답을 해 주는 내용 바로 앞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4 ㉠ 선행사가 many tourists로 복수 명사이므로 단수 동사 was를 복수 동사 were로 고쳐 써야 한다.
- 15 빙산들이 녹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모양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모양의 빙산을 결코 두 번 볼 수 없다는 뜻이므로 (D) different(다른)를 same(같은)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16 일루리사트(Ilulissat)에서 빙산들을 본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그린란드의 놀라운 빙산들'이 적절하다.
 ① 일루리사트를 향한 험난한 길
 ③ 개 썰매 운전자들을 위한 훈련
 ④ 아름다운 빙산의 사진들
 ⑤ 매년 그린란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
- 17 풍경은 같아 보였지만 그린란드에 도착할 때와 떠날 때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8 그린란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의 필자의 심경으로는 ⑤ '감동적이고 기쁜'이 적절하다.
 ① 지루하고 무관심한 ② 낙심하고 슬픈
 ③ 차분하고 평화로운 ④ 질투하고 짜증이 난

수술형으로 끝내기

p.110~112

01 ㉠ land ⑥ chopped	02 ① → long
03 While having dinner, the Niensens told us about some Greenlandic traditions.	
04 Sarah requested that no one be told of her decision until next meeting.	
05 ⑤ → floating	
06 ㉠ I felt as if I were in Giant Land in <i>Gulliver's Travels</i>	
⑥ He explained that the word "ilulissat" means "icebergs" in Greenlandic.	
07 (A) (h)andicrafts (B) (d)etermination	
08 ㉠ → had imagined 09 (A) that (B) what	
10 It looked as if the lights were slowly dancing to the music of nature.	

- 01 ㉠ '막 ~하려고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be about to + 동사원형」이므로 동명사 landing을 동사원형 land로 고쳐 써야 한다.
 ⑥ 양파, 당근, 버섯이 '잘게 썰린'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 chopped로 고쳐 써야 한다.
- 02 오랜 비행을 하고 나니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는 흐름이므로 ① short(짧은)를 long(긴)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03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에 유의해 영작한다.
- 04 주장, 요구, 제안, 명령 등의 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낼 때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이 온다는 것에 유의하고, '아무도 ~에 대해 들어서 안 된다'는 부정어와 수동태를 사용하여 no one be told로 나타낸다.
- 05 다른 모양의 거대한 빙산들이 바다에서 떠다니고 있다는 흐름이므로 ⑤ sinking (sink: 가라앉다)을 floating(float: 떠다니다)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06 ㉠ 주절 동사가 과거이고 as if 가정법 과거로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will be를 were로 고쳐 써야 한다.
 ⑥ which를 explain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바꾸고,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는 주절의 시제와 일치시키지 않으므로 과거 시제

meant를 현재 시제 means로 고쳐 써야 한다.

- 07 (A) '전통적인 방식으로,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handicrafts (수공예품들)이다.
- (B) '매우 어려울지라도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려는 능력'에 해당하는 단어는 determination(투지)이다.
- 08 ㉔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아름다움이 훨씬 뛰어 넘은 것보다 아빠가 내게 보여 주신 사진들로부터 내가 상상했던 것이 더 이전의 일)이므로 과거완료(had + 과거분사)로 고쳐 써야 한다.
- 09 (A)에는 doub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적절하고, (B)에는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 10 as if 가정법 과거(as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와 과거진행 시제에 유의해 영작 한다.

R 교과서 핵심 | 본문 다시 쓰기

p.113~118

- 01 One day, Dad showed me a wonderful picture of the Northern Lights.
- 02 It was sent by Erik Nielsen, who is Dad's close friend living in Greenland.
- 03 He invited my whole family, and we decided to go.
- 04 From that moment on, I could not wait to see the Northern Lights with my own eyes.
- 05 We were finally about to land at Nuuk Airport in a few minutes.
- 06 I looked down and saw ocean, hills, and buildings with some snow on them here and there.
- 07 It looked cold out, but after such a long flight I could not wait to get off the airplane.
- 08 When I got out, I noticed other passengers clapping their hands as they got off.
- 09 Mom and I followed what they did without knowing why.
- 10 Dad later told me that it is an old tradition celebrating a safe arrival.
- 11 The air was certainly cold but refreshing.
- 12 Mr. Nielsen was waiting for us in the arrival zone.
- 13 He looked very kind.
- 14 He drove us to his home near the airport.
- 15 Nuuk, the capital city of Greenland, looked quite modern and clean.
- 16 As we entered his house, Ms. Nielsen and their son Joas said, "Tikilluarit."
- 17 It means "welcome" in Greenlandic.
- 18 That evening we had dinner at their home.
- 19 They cooked *suaasat*, a traditional Greenlandic stew.
- 20 Ms. Nielsen told us it was made from whale meat with chopped onions, carrots, mushrooms, and several grains such as barley.
- 21 The flavor was a bit strong and the meat was chewy, but I liked it.
- 22 While having dinner, the Niensens told us about some Greenlandic traditions.
- 23 When I said I wanted to learn more, they suggested that we go to the National Museum of Greenland together.
- 24 Mr. Nielsen and Joas took my family to the National Museum of Greenland.
- 25 On our way to the museum, I noticed a red building that looked like a mailbox.
- 26 Actually, it was a real mailbox!
- 27 "It is the world's biggest mailbox."
- 28 It was designed to protect the mail from strong snowy winds," explained Joas.

- 29 When I got close to it and looked up, I felt as if I were in Giant Land in *Gulliver's Travels*.
- 30 At the museum, we could see traditional costumes, tools, and handicrafts made by the Inuit, who are the native Greenlanders.
- 31 They used animal skins to make warm clothes and even boats.
- 32 Using animal bones and horns, they made weapons and tools such as knives and needles, and even carved works of art.
- 33 I could sense their wisdom and strong determination to overcome the harsh environment.
- 34 After breakfast, my family headed to Ilulissat with Mr. Nielsen.
- 35 He explained that the word "ilulissat" means "icebergs" in Greenlandic.
- 36 I could see many tourists who were there to see the icebergs.
- 37 The first thing that caught my eye was a road sign with a picture of a sled on it.
- 38 I asked Mr. Nielsen what it was for.
- 39 He said, "It warns people about the dog sleds passing through this area."
- 40 I wanted to see a dog sled, but it was not snowy enough for them yet.
- 41 We took a boat from the town harbor to see the icebergs better.
- 42 What we saw as we approached them left us speechless.
- 43 Enormous icebergs of different shapes were floating in the sea.
- 44 Some of them were as big as mountains.
- 45 Mr. Nielsen said, "The icebergs are melting and slowly changing into new shapes every day.
- 46 In fact, they are melting faster than ever."
- 47 That means we can never see the icebergs in the same shape twice.
- 48 Dad kept taking pictures, and I tried my best to record the images of the beautiful icebergs in my mind.
- 49 Leaving Ilulissat behind, we went to Kangerlussuaq, the final destination of our journey.
- 50 It is one of the best places in Greenland to see the Northern Lights.
- 51 Mr. Nielsen insisted that we get settled early, saying the Northern Lights might appear any time after dark.
- 52 So, we set up on a hill and had dinner while waiting calmly for the lights.
- 53 Hours passed without any sign of them in the sky.
- 54 I began to doubt that we could see the lights.
- 55 At that moment, Mom shouted, "Look up there!"
- 56 Some lights began to appear in the sky!
- 57 At first, they looked like candle flames waving in the wind.
- 58 Then, they gradually turned into curtains of green lights that kept changing color and shape.
- 59 It looked as if the lights were slowly dancing to the music of nature.
- 60 Their beauty was far beyond what I had imagined from the photos Dad had shown me.
- 61 It was the best night of my life.
- 62 This morning, Mr. Nielsen kindly saw us off at the airport.
- 63 As the plane took off, I looked down at Greenland once again.
- 64 The landscape looked the same, but this time I had quite a different feeling.
- 65 Greenland may not be as "green" as the name suggests.
- 66 However, it showed me the beauty of its grand nature.
- 67 I was also able to learn about the strong spirit of the native people living here.
- 68 It will always remain in my memory as a dynamic and colorful place to visit.

최종점검 모의고사

Lesson 05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20~127

01 ③	02 ⑤	03 ⑤	04 ⑤	05 ①	06 ②
07 ③	08 ⑤	09 ①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③	15 ③	16 ⑤	17 ⑤	18 ⑤
19 ②	20 ④	21 ①	22 ②	23 ④	24 ①
25 ⑤					

- 01 빈칸 앞에서 자원봉사가 어렵거나 따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이어서는 자원봉사를 즐겁게 한 경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③ ‘그렇지 않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②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④ 그것은 큰 일이 아니다.
⑤ 그것은 나의 취향이 아니다.
- 02 ㉠ 사역동사 make가 쓰여 「사역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의 형태로 써야 하므로 과거형 came을 동사원형 come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3 빈칸 앞에서 그녀(Kumari)가 한글로 낱말을 쓸 때 눈이 기쁨으로 빛났고, 빈칸 뒤에서 ‘나’는 가르치는 것에 큰 기쁨을 느껴 이러한 것들이 계속 수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Kumari가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⑤ ‘열정적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긴장되는 ② 자신 있는 ③ 낙담한 ④ 무관심한
- 04 ⑥의 앞에서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며, ⑥의 뒤에서는 내년 여름 봉사 활동에 대한 계획이 언급되므로, 이번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이점에 해당하는 주어진 문장은 ⑥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5 6행에서 민지의 오빠가 사회복지관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① ‘민지는 그녀의 선생님께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받았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Kumari의 꿈은 그녀의 아들에게 한글로 된 책을 읽어주는 것이었다.
③ 민지는 Kumari로부터 감사 편지와 함께 선물을 받았다.
④ 민지와 Kumari는 전자 우편으로 여전히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
⑤ 민지의 자원봉사 경험은 그녀가 다른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 06 여름 방학에 했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기쁨 또한 느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② ‘봉사 활동 경험과 그것의 이점들’이 적절하다.
① 다른 문화들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
③ 여름 방학 기간 자원봉사를 위한 자격 요건
④ 의사소통에서 문화 차이의 예시들
⑤ 주민 센터에서 제공되는 오락 활동들
- 07 완성된 벽화를 보고 행복해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글쓴이도 기뻐하는 상황이므로 ③ depressed(우울한)를 delighted(기쁜)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08 (A) 선행사 a wall-painting volunteering program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 이어지며, 전치사 in이 앞에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B) 주어진 the picture는 ‘완성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 was finished가 적절하다.
(C) 동명사 주어진 Working as a group은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 was가 적절하다.
- 09 미술 동아리에서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하게 되었다는

주어진 글의 내용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벽화 봉사활동에 관해 언급한 (a)가 오고, 벽화 봉사활동의 첫 단계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그림을 완성하기 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인 (c)가 오며, 그림을 완성한 후 보람을 느꼈다는 내용인 (b)가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0 빈칸 앞부분에서 단계로 작업하는 것은 아주 즐거웠으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 있고, 빈칸 뒤에서는 텅 비어 있던 벽이 아름답고 신나는 정원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⑤ ‘공동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분배, 배분 ② 동의 ③ 지원; 적용 ④ 인식, 인정
- 11 진수의 봉사활동은 실제 정원을 가꾸는 것은 아닌, 학교의 벽에 정원을 그리는 것이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2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진수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그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그는 이 자원봉사의 경험이 그의 꿈을 이루는 데에도 또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① 가입했다 …… 걸기
② 작동시켰다 …… 전시하기
③ 설계했다 …… 걸기
⑤ 인계받았다 …… 포즈를 취하기
- 13 (A) 자원봉사 경험과 보람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흥미를 느끼는’이라는 뜻의 interested가 적절하다. (irritated: 짜증이 난)
(B) 녹음을 하게 되자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자연스럽게 읽도록 노력했다는 내용이므로 ‘자연스럽게’라는 뜻의 naturally가 적절하다. (neutrally: 중립적으로)
(C) 주민 센터 녹음실에서 간단히 테스트를 받았으며, 이어 녹음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통과했다’라는 뜻의 passed가 적절하다. (failed: 불합격했다)
- 14 ㉠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with 뒤에 오는 목적어(명사)와 목적격보어(분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현재분사를 쓴다.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닌 능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beaten을 현재 분사 bea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5 글쓴이의 마음에 드는 봉사 활동을 찾았다는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 바로 다음에, 주민 센터에 가서 녹음 테스트를 받았다는 내용인 (c)가 오고, 며칠 후에 테스트를 받았던 녹음실에 다시 돌아와 발음 교육을 받고 녹음을 시작했다는 내용인 (b)가 이어지며, 몇 가지 실수를 하긴 했지만 무사히 마쳤다는 (d)가 온 다음,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를 하며 느낀 기쁨과 다른 사람들도 봉사 활동을 하길 바란다는 내용인 (a)가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6 빈칸 앞에서 책 낭독 자원봉사를 계속 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 돕는 데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는 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들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다
② 우리의 역사와 유산을 존중하다
③ 장애에 관한 많은 책을 읽다
④ 장애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다
- 17 빈칸 앞에서 글쓴이가 녹음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내용이 오며, 뒤에서는 고등학교생들을 위해 역사책을 낭독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나와 있으므로, 녹음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⑤ ‘정확한 발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단정한 필체
② 올바른 문법
③ 정확한 번역
④ 묘사하는 글쓰기
- 18 유빈이는 첫 녹음에서 몇 가지 실수를 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9 첫 임무를 시작했을 때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채로 초조하게 읽기 시작했다가 녹음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녹음 담당자에게도 칭찬을 들었다는 내용이 언급되므로 ‘!’의 심경 변화로는 ② ‘초조한 → 안심하는’이 적절하다.

- ① 침착한 → 걱정하는
- ③ 희망에 찬 → 겁에 질린
- ④ 신이 난 → 혼란스러운
- ⑤ 겁먹은 → 질투하는

- 20 주민 센터에서 낭독 봉사 활동을 한 경험을 소개하며 자원봉사 동참을 독려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④가 적절하다.
- 21 (A) when she was teaching에서 「주어 + be동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주어(he)와 동사(teach)가 「그녀가 가르치다」라는 의미의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teaching이 적절하다.
 (B) to부정사가 a giant picture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으므로 능동형인 complete이 적절하다.
 (C) 선행사 the children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안에 주어와 없으므로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who가 적절하다.
- 22 소중한 봉사 활동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의 글로 민지가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기쁨을 느꼈다는 내용에 이어 Kumari라는 이름의 학생과 친구가 되었다는 부연 설명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② ‘게다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러므로 ③ 반면에 ④ 반대로 ⑤ 예를 들어
- 23 완성된 그림을 본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기뻐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아이들이 벽화에 만족했다는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민지는 이민자들에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즐겼다. →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② 민지는 Kumari라는 이름의 선생님과 친해졌다. → Kumari라는 이름의 학생임.
 ③ 진수는 혼자서 벽 전체를 칠해야 했다. →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벽을 칠함.
 ⑤ 유빈이는 청각 장애인을 돕는 봉사 활동을 했다. → 시각 장애인을 돕는 봉사 활동을 함.
- 24 (A) Concern의 목적어 역할과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 관계대명사 Whom이 적절하다.
 (B)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이므로 to help가 적절하다.
 (C)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므로 give가 적절하다.
- 25 글쓴이는 봉사 활동에 지원하고자 자신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인건부터 교육까지 컴퓨터만 있으면 자신의 재능을 어떤 것에도 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의 ⑥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Lesson 06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28~135

01 ③	02 ②	03 ①	04 ③	05 ③	06 ①
07 ⑤	08 ③	09 ④	10 ⑤	11 ⑤	12 ③
13 ②	14 ③	15 ③	16 ④	17 ③	18 ③
19 ②	20 ⑤	21 ②	22 ②	23 ①	24 ⑤
25 ③					

- 01 (A) 선행사 Erik Nielse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이며,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who가 적절하다.
 (B) '~하고 싶어 참을 수 없다'는 「cannot wait to + 동사원형」으로 나타내므로, to부정사인 to see가 적절하다.
 (C) 앞에 선행사가 없고, followed의 목적어이면서 관계대명사절 내의 동사 did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 02 ⑥ 지각동사 noticed가 쓰여 「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현재분사])」의 형태로 쓰여 하므로 to부정사 to clap은 동사원형 clap 또는 현재분사 clapp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3 빈칸 앞에서 아버지의 친구의 집에 초대된 상황이 언급되고,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① ‘환영합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안녕히 계세요 ③ 죄송합니다 ④ 감사합니다 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 04 글쓴이는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먹은 음식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나라의 고래 고기 소비가 1962년에 226,000 톤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③은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 05 빈칸 앞에서 Nielsen 가족이 그린란드 전통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해 주었고 이어서 그린란드 국립 박물관에 가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③ ‘저는 그린란드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저는 밖에 나가서 눈밭에서 놀고 싶어요
 ② 저는 빙산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요
 ④ 저는 북극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간을 알고 싶어요.
 ⑤ 저는 전통 그린란드 스텐인 ‘수아사트’를 포장해서 가져가고 싶어요
- 06 1~2행에서 아버지가 글쓴이에게 사진을 보여 주었고, 그 사진은 아버지의 친구에게서 온 것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7 Nielsen 씨와 Joas가 글쓴이의 가족을 그린란드 국립 박물관에 데려갔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박물관으로 가던 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을 보았다는 (C)가 오고, 박물관에서 전통 의상, 도구들, 수공예품을 보았다는 내용인 (B)가 오며, 동물 뼈와 뿔을 사용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등 이누이트족의 지혜와 강인한 투지를 느꼈다는 내용인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08 ⑥ 관계부사 where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하는데, 여기서는 주어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선행사 a red building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9 글쓴이는 그린란드 국립 박물관에서 이누이트족이 동물의 신체 부위를 활용해 만든 수공예품, 무기, 도구 등을 보았고, 이어 혹독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투지를 느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밑줄 친 부분이 함축하는 것은 ④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고자 동물의 신체 부위들을 활용한 것’이다.
 ① 예술 작품을 세계에 수출한 것
 ② 야생 포식자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한 것
 ③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을 설계한 것
 ⑤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전통 공예품을 보존한 것
- 10 (A)의 2~3행에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의 지혜와 강인한 투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⑤ ‘글쓴이는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강한 의지에 감명받았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글쓴이는 박물관에 전시된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을 보았다. → 박물관에 가는 길에 우체통처럼 보이는 실제 우체통 건물을 보았음.
 ② 우체통의 디자인은 그린란드의 온화한 날씨에 영향을 받았다. → 강한 눈보라로부터 우편물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됨.
 ③ 글쓴이는 소설 《걸리버 여행기》가 쓰인 장소를 방문하였다. → 실제로 큰 우체통 건물을 보니 마치 거인국에 있는 것처럼 느꼈음.
 ④ 이누이트족은 따뜻한 옷과 보트를 만들기 위해 동물 뼈와 뿔을 사용하였다. → 동물 가죽을 사용함.
- 11 ⑥ 접속사 and로 현재진행형 melting과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과거형 changed를 현재분사 chang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2 빈칸 앞에서 빙산이 녹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모양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다고 언급되었으므로 빈칸에는 ③ ‘우리는 같은 모양의 빙산을 다시는 볼 수 없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빙산은 내일 더 높이 솟을 것이다
 ② 우리의 자원봉사가 빙산이 녹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④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필요가 있다
 ⑤ 우리가 내일 다시 오더라도, 빙산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 13 4~5행에서 개 썰매를 보고 싶었지만 눈이 충분히 덮여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4 글쓴이가 빙산을 탐방하며 느낀 감상을 기록한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내 인생의 경험: 빙산으로의 여행’이 적절하다.
 ① 그린란드에서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
 ② 그린란드에서 개 썰매를 경험하라
 ④ 녹고 있는 빙하: 원인, 결과, 그리고 해결책
 ⑤ 그린란드에서 얼음 사진을 찍는 완벽한 안내서
- 15 (A) 북극광이 어두워진 후에 어느 시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으므로 ‘나타나다’라는 뜻의 appear가 적절하다. (disappear: 사라지다)
 (B) 북극광의 아름다움이 내가 사진을 보고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내용이므로 ‘~ 이상’이라는 뜻의 beyond가 적절하다. (below: ~ 아래)

(C) 공항까지 배웅을 받은 후 비행기가 이륙하며 그린란드를 바라보는 상황이므로 '이륙했다'라는 뜻의 took off가 적절하다. (landed on: 착륙했다)

- 16 ㉔ 주절이 과거이고 과거 사실과 반대를 나타내므로 as if 가정법 과거(as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며, as if절의 be동사는 주어와 관계없이 were를 사용하므로 are를 were로 고쳐 써야 한다.
- 17 주어진 문장은 '처음에 그것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보였다.'라는 의미이며, ㉓의 앞에서 하늘에 약간의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오며, 뒤에서는 불빛들이 자연의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내용이 언급되므로, 불빛을 처음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은 ㉔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8 빈칸 앞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그린란드를 내려다보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㉓ '풍경'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지혜 ② 후원 ④ 무지 ⑤ 협동
- 19 빈칸 앞에는 그린란드가 이름이 암시하는 것만큼 초록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빈칸 뒤에서는 웅장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었다는 내용이 오므로, 빈칸에는 ㉔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간단히 말해 ③ 유사하게 ④ 게다가 ⑤ 예를 들어
- 20 Day 4 글의 8~9행에서 글쓴이는 북극광의 아름다움이 아버지가 보여 준 사진을 보고 상상했던 것을 뛰어넘었다고 언급했으므로 ㉔ '북극광은 글쓴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북극광은 어두워지기 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어두워진 후에 언젠가 나타난다고 했음.
 ② 글쓴이는 북극광을 기다리면서 점심을 먹었다. → 저녁을 먹음.
 ③ 글쓴이는 북극광이 나타나기 전에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 오래 기다렸음.
 ④ 글쓴이의 아버지는 북극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글쓴이에게 말했다. → 어머니가 하늘을 보라고 했음.
- 21 Day 4 글의 4~5행에서 글쓴이는 북극광을 볼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가, 북극광이 나타난 이후인 7행부터는 그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I'의 심경의 변화로는 ㉔ '의심하는 → 감명을 받은'이 적절하다.
 ① 지루해 하는 → 영감을 받은
 ③ 무관심한 → 기쁜
 ④ 초조한 → 실망한
 ⑤ 기대하는 → 흥미없는
- 22 (A)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일 때는 「have + 과거분사」의 형태인 현재완료 시제로 나타내므로 have been이 적절하다.
 (B) 수식을 받는 대상인 a town이 '불리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called가 적절하다.
 (C) 동사 will not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며, how가 이끄는 간접의문문은 「how + 형용사 [부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쓰므로 how big they are가 적절하다.
- 23 편지를 쓴 상인은 그린란드에 도착하여 빙산을 방문한 것과 앞으로의 일정에 관해 간단히 소식을 전하며 편지를 받는 Daniel 또한 잘 지내고 있으라며 인사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㉑이 적절하다.
- 24 (A)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Last Saturday(지난 토요일)가 있으므로 과거형 visited가 적절하다.
 (B) as if 가정법 과거는 「as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으로 나타내며, as if절의 be동사는 주어와 관계없이 were를 사용하므로 were가 적절하다.
 (C) 주어진 It은 자전거를 타는 일을 가리키며, 그것이 '상쾌한 기분을 주는' 것이므로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분사 refreshing이 적절하다.
- 25 2~3행에서 메타세콰이어 길을 따라 걸으며 나무들이 매우 아름다웠다는 감상이 나오므로 ㉓ '글쓴이는 메타세콰이어 길을 따라 걸으며 만족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글쓴이는 가평의 남이섬으로 1박 여행을 떠났다. → 당일 여행이라고 했음.
 ② 글쓴이는 가평역에서 남이섬까지 기차로 이동했다. → 가평역까지 기차를 타고 거기서 남이섬까지는 배를 탔음.
 ④ 글쓴이는 한국 TV 쇼에 단역으로 참여했다. → 한국 TV쇼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라고 했음.

㉔ 글쓴이는 자전거를 탄 후에 매우 지쳤다. → 매우 재미있었고 상쾌했다고 함.

Lesson 05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p.136~143

- 01 Many people around us are in need of help.
 02 (A)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하는 것
 (B) Kumari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 열정적이어서 내가 가르치는 데 큰 기쁨을 느낀 것
 03 She bowed to me saying, "Namaste," with her palms held together.
 04 ① lit ② written ③ Looking
 05 She wanted to read books to her son. 06 (a) joy (b) teach
 07 1. volunteer 2. nervous 3. enthusiastic 4. immigrants
 08 The club ran a wall-painting volunteer program that I got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09 Our collaboration had turned the empty wall into a beautiful, exciting garden.
 10 ㉔, ㉔
 11 (1) He painted pictures on the wall of an elementary school.
 (2) That's because some other volunteers had already painted it white.
 12 (a) children (b) dream
 13 ㉔ voice volunteering ㉔ experience
 14 (A) Luckily (B) Moreover
 15 the recording room where I had taken the test
 16 I started reading the book with my heart beating very fast.
 17 (d) : 테스트 합격 후에 녹음실에 다시 돌아와 발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테스트에 통과하면 발음 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18 (a) Joy (b) Voice 19 check out
 20 now that I think about it 21 remember
 22 you're not supposed to bring any food or soft drinks
 23 By the way
 24 let me arrange the bowls in the cupboard for you
 25 (1) sweet (2) grateful

- 01 '~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be in need of ~를 활용하여 쓴다. 주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many people around us로 표현하며, 복수 주어 many people에 수를 일치시켜 복수 동사 are로 쓴다.
- 02 (A) it이 포함된 문장은 '오빠가 나를 격려해 주었기에 그것을 한 번 해 보기로 했다.'라는 의미이며, 앞의 내용으로 보아 글쓴이가 해 보기로 한 것은 사회 복지관에서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B) This가 포함된 문장은 '이것이 나를 계속 수업에 돌아오도록 이끌었다.'는 의미이며, 앞의 내용으로 보아 '나'를 수업에 계속 돌아오게 한 것은 Kumari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 열정적이어서 내가 가르치는 데 큰 기쁨을 느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03 '나마스테라고 말하면서'라는 의미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동사 say를 현재분사 saying으로 바꿔 표현하고, '손을 모은 채로'는 「with + 명사 + 분사」 구문을 이용해 나타낸다. with 다음의 명사는 목적어이며, 이를 수식하는 분사는 목적격보어이므로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목적격보어 자리에 과거분사를 쓴다. 손은 '모여지는'(수동) 것이므로 동사 hold를 과거분사 held로 쓴다.
- 04 ① 주어 her eyes를 받는 과거 시제 동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light의 과거형 lit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② 문맥상 편지는 Kumari에 의해 '쓰여지는'(수동) 것이므로, 과거분사 writt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③ 뒤에 주절이 이어지므로 문맥상 '내가 뒤돌아 봤을 때'라는 의미의 분사구문이 필

요한 자리이다. 따라서 현재분사 Loo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5 질문은 '왜 Kumari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는가?'이며, 이에 대한 답은 15~16행에서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 06 민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b)가르칠 기회를 가져 (a)기뻐다.
- 07 1.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 자원봉사자
2. 무언가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긴장한, 불안해하는
3. 무언가에 대해 많은 흥분과 흥미를 느끼거나 보이는: 열정적인, 열렬한
4. 그들의 나라가 아닌 곳에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 온 사람들: 이민자들
- 08 '운영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run을 과거 시제 ran으로 쓴다. '내가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관계대명사절로 선행사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꾸며주며, '참여할 기회'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the chance를 뒤에서 수식하도록 하여 a wall-painting volunteer program that I got the chance to participate in으로 쓴다.
- 09 앞 문장인 '내가 놀랐다'보다 이전의 일이므로 문장의 동사인 '바꿨다'는 과거완료 시제인 had turned로 쓴다. '뒀 비어 있던 벽을 아름답고 신나는 정원으로 바꿨다'는 'A를 B로 바꾸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turn A into B」를 활용하여 had turned the empty wall into a beautiful, exciting garden으로 쓴다.
- 10 밑줄 친 to see는 '보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고, <보기>의 @는 '데뷔하기 위해서'로, ㉞는 '지지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므로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
 - BTS(방탄소년단) 멤버들은 K-pop 아티스트로 데뷔하기 위해 3년 동안 훈련했다.
 - 데뷔 1년여 만에 팬들은 BTS를 지지하기 위해서 'A.R.M.Y'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팬클럽을 만들었다.
 - 2019년, BTS는 K-pop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Grammy Awards에서 시상했다.
 - 그들의 매니지먼트 회사의 철학은 중요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 BTS는 2020년대에 계속해서 음악 산업을 지배할 것 같다.
- 11 (1) 질문은 '진수는 어떤 종류의 봉사 활동을 했는가?'이며, 이에 대한 답으로 6행부터 초등학교의 벽에 그림을 그린 봉사 활동에 대해 언급되었다.
(2) 질문은 '왜 그 벽이 큰 캔버스처럼 보였는가?'이며, 이에 대한 답으로 7행에서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벽을 하얗게 칠해 놓았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 12 진수는 완성된 벽화에 기뻐하는 (a)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행복했다. 이 봉사 활동을 통해 진수는 자신의 (b)꿈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 13 @ that이 포함된 문장은 '저것이 바로 내가 찾던 거야!'라는 의미이며, 이때 저것이란 음성 자원봉사를 의미하므로, 앞 문장의 voice volunteering을 가리킨다.
㉞ do가 포함된 문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같은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이며, 일반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동사 대신 do / does / did를 써서 표현하므로 앞의 동사인 experience를 가리킨다.
- 14 (A) 녹음실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 합격했다는 흐름이므로 Luckily(다행히)가 적절하다.
(B) 봉사 활동을 하며 책을 읽는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이어 시각 장애인을 돕는 데 기쁨을 느꼈다는 부연 설명이 이어지므로 Moreover(게다가)가 적절하다.
- 15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을 이끄므로, 선행사 the recording room(녹음실) 뒤에 쓴다. '내가 테스트를 받았던'은 이전의 일이므로 과거완료 I had taken the test로 쓴다.
- 16 start는 목적어로 to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취할 수 있으나 조건이 동명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명사 reading으로 쓴다. with 분사구문에서 목적어인 명사와 목적격보어인 분사가 능동의 관계일 때는 현재분사를,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쓰는데, 심장은 '스스로 뛰는'(능동) 것이므로 현재분사 beating을 쓴다. 이어 부사구인 very fast를 써서 완성한다.
- 17 6행에서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것이 언급되고, 이후 7~8행에서 테스트를 받은 녹음실에 다시 돌아와 발음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18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험과 그것의 보람을 설명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당신의 (b)목소리로 봉사 활동을 하는 (a)기쁨을 경험하세요'가 적절하므로 빈칸에는 각각 Joy(기쁨)와 Voice(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 19 남자의 말에 여자는 세 권 다 빌릴 것인지 묻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나머지는 책 카트에 올려놓으라는 말로 보아 도서관에서 남자가 책을 대출하려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check out(대출하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0 '~해 보니, ~하고 나니'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now that을 활용하며, 「now that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 21 do가 포함된 문장은 '아마도 그러시겠지요.'라는 의미이며, 이때 그렇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 문장의 remember를 대신한다.
- 22 규칙, 문화, 약속, 습관, 상식 등에 근거한 의무나 예절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 「You are (not) supposed to + 동사원형 ~.」을 이용하며, any의 수식을 받는 불가산 명사인 food는 단수형으로 쓰며, 가산 명사인 drink는 복수형인 drinks로 쓴다.
- 23 M은 Brown 씨의 안부를 묻은 뒤에 점심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다른 화제를 언급할 때 쓰는 연결사인 By the way(그런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4 '제가 ~하게 해 주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는 「Let me + 동사원형 (for you) ~.」으로 나타내며, '찬장에 있는 그릇들'은 전치사구 in the cupboard를 the bowls 뒤에 쓰고, '당신을 위해'는 전치사 for 뒤에 목적어 you를 써서 문장을 완성한다.
- 25 (1) sweet(상냥한, 다정한): 친절한 성격을 가지거나 보이는
(2) grateful(고마워하는): 당신을 위해 누군가 친절한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를 보이거나 표하는

Lesson 06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p.144~151

- 01 (1) ㉠ → It looked cold out, but after such a long flight I could not wait to get off the airplane.
(2) ㉡ → they recommended that we go to the National Museum of Greenland together
- 02 Mom and I followed what they did without knowing why.
- 03 clapping their hands as they got off
- 04 I felt as if I were in Giant Land in *Gulliver's Travels*
- 05 (d)etermination 06 Using animal bones and horns
- 07 (1) ㉠ → He explained that the word "ilulissat" means "icebergs" in Greenlandic.
(2) ㉡ → I asked Mr. Nielsen what it was for.
- 08 @ the dog sleds ㉞ the icebergs
- 09 What we saw as we approached them left us speechless.
- 10 Some of them were as big as mountains.
- 11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통과하는 개새매에 대해 경고하는 것
- 12 (a) icebergs (b) snow (c) speak
- 13 Mr. Nielsen insisted that we get settled early
- 14 ㉠ like ㉡ into ㉢ as 15 were not slowly dancing
- 16 Their beauty was far beyond what I had imagined from the photos Dad had shown me.
- 17 there was no sign of the lights in the sky for hours
- 18 (a) nature (b) spirit
- 19 (1) ㉠ → Everyone looks so happy.
(2) ㉡ → Is it an ice cream which[that] you're holding?
- 20 Have you ever been there?
- 21 the sun was so strong that I wore this big hat
- 22 (a) picture (b) view 23 가벼운 재킷을 챙겼다
- 24 (j)ust in case 25 don't forget to pack the camera

- 01 ㉢ '~하고 싶어 참을 수 없다'는 「cannot wait to + 동사원형」으로 나타내므로, getting off는 to get off로 고쳐 써야 한다.
㉤ '제안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recommend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낼 때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로 쓰므로 과거형 went는 동사

원형인 go로 고쳐 써야 한다.

- 02 문장의 주어와 동사에 해당하는 '엄마와 나는 따라했다'는 Mom and I followed 로 쓰고, '그들이 하는 것을'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하여 what they did로 나타낸다. '이유를 모른 채'로는 '~하지 않은 채'라는 의미인 전치사 without을 이용하여 쓴다. without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며, 관계부사 why 앞에 the reason을 생략하여 쓸 수 있으므로 without knowing why로 문장을 완성한다.
- 03 it이 포함된 문장은 '아빠는 후에 그것이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축하하는 오랜 전통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의미이며, 앞의 내용으로 보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 내리면서 박수를 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04 과거 상황을 나타내므로 문장의 주어 I를 받는 동사는 과거 시제 felt로 쓴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 나라에 온 것처럼'은 '마치 ~인 것처럼'을 의미하는 as if 가정법 과거 구문을 활용하여 나타낸다. 「as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형태에 맞춰 as if I were in Giant Land in Gulliver's Travels로 쓴다.
- 05 글쓴이가 박물관에서 그린란드의 가혹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이누이트족의 무기, 도구, 수공예품 등을 보았고 그들의 지혜와 강한 어떤 것을 감지했다는 내용이며, 영영풀이는 '무언가가 어려울 때조차 그것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자질'이라는 의미이므로, 빈칸에는 determination(투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6 평서문을 분사구문으로 바꾸기 때 먼저 전후 관계와 같이 접속사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접속사를 생략하므로 부사절의 접속사 As를 생략한다.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같은 경우 생략하므로 종속절의 주어 they를 생략한다. 이후 종속절의 동사에 -ing를 붙여 분사로 바꾸어 쓰므로 Using으로 바꾸고 목적어인 animal bones and horns는 그대로 유지하여 쓴다.
- 07 ① explained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②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로 쓰므로, what it was로 고쳐 써야 한다.
- 08 ③ them이 포함된 문장은 '나는 개 썰매를 보고 싶었지만 그것들이 지나다니기에는 아직 눈이 충분히 덮여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며, 이때 그것들이란 개 썰매를 의미하므로, 앞에서 언급된 the dog sleds를 가리킨다.
④ them이 포함된 문장은 '그것은 우리가 같은 모양의 그것들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이며, 이때 그것들이란 빙산을 의미하므로, 앞에서 언급된 the icebergs를 가리킨다.
- 09 '우리가 본 것'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하여 What we saw로 나타낸다. '그것들에 접근하면서'는 접속사 as가 이끄는 종속절로 표현하여 as we approached them으로 쓴다. '우리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는 '~이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leave를 활용하여 left us speechless로 문장을 완성한다.
- 10 '~만큼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as + 형용사[부사]의 원급 + as ~」 구문을 활용하여 쓴다.
- 11 질문은 '글쓴이가 본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며, 이에 대한 답은 4~5행에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개썰매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 12 그린란드어로 (a)빙산은 "ilulissat"로 불린다. / 나는 (b)눈의 부족으로 인해 개썰매를 볼 수 없었다. / 내가 그것들에 가까이 갔을 때 나는 (c)말할 수 없었다.
- 13 동사 insist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that절을 목적어로 가질 때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로 쓰므로 Mr. Nielsen insisted that we ~로 나타낸다. 종속절의 동사 부분인 '일찍 자리를 잡다'는 get settled early로 표현한다.
- 14 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이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처럼'을 뜻하는 전치사 like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초록색 불빛의 커튼들로 변했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으로 변하다'를 의미하는 표현 turn into의 전치사 into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방문지로'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로서'를 의미하는 전치사 as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5 주절이 과거일 때 as if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표현한다. 전환되는 문장은 In fact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부정어 not을 이용하여 반대 상황인 were not slowly dancing을 써서 문장을 완성한다.

- 16 '그것들의 아름다움은 ~이었다'는 Their beauty was ~로 쓰며, '~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far beyond + 목적어」로 나타낸다. '사진을 보고 상상했던 것'은 아름다움을 느낀 것보다 이전의 일이므로 과거완료 시제인 「had + 과거분사」의 형태로 쓰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해 what I had imagined from the photos로 쓴다. 사진은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 주셨던'이라는 말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사진을 보여 준 것 또한 이전 일이므로 과거완료 시제를 이용해 Dad had shown me로 쓴다.
- 17 질문은 '왜 글쓴이는 북극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는가?'이며, 이에 대한 대답은 Day 4의 4행에서 하늘에서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되어 있다.
- 18 그린란드로의 여행을 통해 글쓴이는 (a)자연의 엄청난 아름다움에 관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강인한 (b)정신력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린란드는 글쓴이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 19 ③ 주어로 쓰인 명사 Everyone은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 looks로 고쳐 써야 한다.
④ 선행사 an ice cream이 있고 이어지는 절이 불완전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0 상대방이 어떤 장소에 방문했던 경험을 묻는 표현인 「Have you (ever) been (to) ~?」를 이용하여 쓴다.
- 21 '너무 ~해서 ...하다'는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동사」 구문을 이용하여 쓴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는 the sun was so strong으로 쓰고, 이어 that 절에서 종속절의 동사 wear도 과거 시제인 wore로 쓰며 목적어인 this big hat을 써서 문장을 완성한다.
- 22 지선이의 보성 녹차밭 여행 (a)사진을 보면서, 그들은 보성의 (b)경치, 날씨, 간식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23 did는 '그렇게 했다'는 대동사로, 앞서 나온 pack a light jacket(가벼운 재킷을 챙기다)을 가리킨다.
- 24 M이 수건을 몇 장 챙길지 묻는 말에 이어서 W는 리조트에서 그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영영풀이는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라는 의미이므로 빈칸에는 just in case(만약을 대비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5 상대방에게 기억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줄 때 사용하는 표현 「Don't forget to + 동사원형 ~」을 이용하여 쓴다.

Lesson 05 적응 모의고사

p.152~160

- 01 ③ 02 ④
- 03 (1) arrange (2) necessary (3) complete (4) available
- 04 (1) confusing (2) valuable (3) accurately 05 ⑤ 06 ②
- 07 ⑤ 08 ①
- 09 if you put it in the wrong place, people may have trouble finding it
- 10 ② 11 ③ 12 ⑤
- 13 Staying up all night for the project was why Joe got dark circle under her eyes.
- 14 (1) stolen (2) enjoying
- 15 (1) The park where they like to hang out is really beautiful especially during the summer.
(2) We all loved the luxurious hotel at which[in which / where] we stayed in Bangkok last winter.
- 16 With some people seated on the chairs, the closing ceremony took place in the building.
- 17 ④ 18 run → running 19 ①
- 20 ③ → looked like ⑥ → had turned 21 ③ 22 ④ 23 ③
- 24 hold → held 25 ② 26 ② 27 ② 28 ④
- 29 ⑤ 30 ⑤

01 ③의 영영풀이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employer(고용인)에 해당한다. employee(직원, 종업원)의 영영풀이는 someone who is paid to

work for someone else(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 ① 남아 있다: 특정한 상황이나 상태로 계속 존재하다
- ② 기쁘게 하다: 누군가에게 큰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주다
- ④ 공동 작업: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것을 만들거나 성취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상황
- ⑤ 자원봉사자: 강요받거나 돈을 받는 것 없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02 participate in: ~에 참여[참가]하다

- ① ~한 것처럼 느끼다 ② ~와 연락하다 ③ 쉬다, 휴식을 취하다 ⑤ 되돌아보다

03 (1) 무언가를 적절한 순서나 알맞은 차례로 두다: 정리[배열]하다(arrange)

- (2) 완전히 필요한; 극도로 중요한: 필수적인(essential)
- (3) 무언가를 하는 것을 끝내다: 완성하다, 끝마치다(complete)
- (4) 얻어질 수 있고, 사용될 수 있거나 달을 수 있는: 이용 가능한(available)

04 (1) confusing: 혼란스러운

- (2) valuable: 귀중한, 가치 있는
- (3) accurately: 정확하게

audience: 관객, 청중 / collaborate: 협력하다, 공동으로 작업하다 / bleed: 피를 흘리다

05 ㉔ 주격 관계대명사 who의 선행사가 a lot of people로 복수이므로 단수 동사 wants를 복수 동사 want로 고쳐 써야 한다.

06 (A) 네팔에서 사람들을 돕는 구호 단체라는 의미이므로 relief(구호)가 적절하다. (belief: 믿음)

(B) 2015년에 큰 지진이 네팔을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다는 흐름이므로 despair(절망)가 적절하다. (comfort: 편안)

(C) NGO에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류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맥락이므로 humanity(인류)가 적절하다. (humiliation: 굴욕)

07 NGO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므로 가르치는 일,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㉔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많은 상장
- ② 치밀한 계획
- ③ 교사 자격증
- ⑤ 관리자로서의 오랜 경력

08 ① '책'을 빌리다'라는 의미의 check out이 적절하며, check in은 '투숙하다; 탑승 수속하다'라는 의미이다.

09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와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have trouble + 동명사」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10 연극이 시작되기 전의 안내 방송이므로 ㉔ '먼저 휴대 전화의 전원을 키셔야 합니다.'는 말의 전체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11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the first place와 관계부사 where를 이용해 영작하면 Home is the first place where you learn about respect and love.이므로 다섯 번째로 오는 단어는 place이다.

12 ㉔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struggling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Darren은 작은 바지를 입어 보려 애쓰면서 탈의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13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를 이용해 영작한다.

stay up all night: 밤을 꼬박 새우다

14 (1)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stolen이 적절하다.

Megan은 그녀의 모든 돈을 도둑맞아서 당황했다.

(2)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enjoying이 적절하다.

파리는 시민들이 많은 스포츠를 즐기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15 (1)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The park)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으로 보아 관계대명사 which를 관계부사 where로 고쳐 써야 한다.

그들이 시간을 보내길 좋아하는 그 공원은 특히 여름에 정말로 아름답다.

(2)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the luxurious hotel) 뒤에 관계부사 where가 오거나 「전치사 + 관계대명사」인 at[in]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우리 모두는 지난 겨울 우리가 방콕에서 머물렀던 그 고급스러운 호텔을 좋아했다.

16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seated를 쓰는 것에 유의한다.

17 첫 번째 문장은 '어디'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의문사 where, 두 번째 문장에는 선행사 the park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where가 들어가야 하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where이다.

• 나는 그들이 어디서 그 멋진 분홍색 드레스와 허리띠를 샀는지 궁금하다.

• 많은 사람들은 나의 어머니와 내가 저녁에 가는 공원에 간다.

18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과거분사 run을 현재분사 runn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Emily는 뺨에 눈물이 흐르는 채로 그녀의 언니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19 (A) 벽이 하얗고 깨끗했는데 사실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흰색으로 칠했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Actually(사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B)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색칠했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First(우선, 먼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하지만 또한

③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④ 그러므로 예를 들어

⑤ 마침내 그때

20 ㉔ 벽이 큰 캔버스처럼 보였다는 흐름이므로 '~처럼 보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looked like로 고쳐 써야 한다.

㉔ 앞 문장의 '내가 놀랐다(I was amazed)'는 것보다 더 이전의 일이므로 과거 시제 turned를 과거완료 시제인 had turned로 고쳐 써야 한다.

21 이미 벽이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고 언급했으므로 ㉔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2 방향이 끝났을 때 더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흐름이므로 ㉔ started (start: 시작하다)를 finished(finish: 끝내다)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23 주어진 글은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날 Kumari라는 이름의 학생을 만났다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그녀가 네팔 출신이며 합장하며 인사를 했다는 (B)로 이어지고, 곧 친구가 되어 서로를 잘 알게 됐다는 (C)가 오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Kumari와 연락을 하고 지내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의 (A)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24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hold를 과거분사 held로 고쳐 써야 한다.

25 Kumari가 그녀의 아들에게 책을 읽어 주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으므로 그녀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울 수 있어서 기뻐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㉔ '그녀의 꿈이 실현되도록 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녀의 아들이 그의 친구들을 만나도록

③ 그녀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도록

④ 그녀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⑤ 그녀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26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므로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흐름이 적절하다. 따라서 ㉔ unnecessary(불필요한)를 necessary(필요한)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27 주어진 문장은 '당신은 자원봉사가 어렵거나 따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뜻으로 이에 대한 답변이 ㉔ 뒤에 나오므로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8 ㉔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과거분사 beaten을 현재분사 beating으로 바꿔 써야 한다.

29 ㉔ 선행사 the recording room을 수식하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하고, 녹음실로 돌아간 것보다 테스트를 본 것이 더 이전의 일이므로 과거완료 시제(had taken)를 쓰는 것에 유의한다.

30 첫 녹음 이후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므로 ㉔은 필자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01 ④	02 ⑤			
03 (1) insist (2) float (3) celebrate (4) chill				
04 (1) handicraft (2) faith (3) book	05 ④	06 ⑤	07 ⑤	
08 ③	09 ④	10 advised, (should) lose	11 ⑤	
12 ③				
13 Kate kept staring at me as if she couldn't get over her astonishment.				
14 (1) ○ (2) is	15 ④	16 ⑤	17 was not	
18 making → made	19 ㉠ → celebrating			
20 Mom and I followed what they did without knowing why. 21 ⑤				
22 ③	23 ②	24 ②	25 ④	26 icebergs
27 Dad kept taking pictures, and I tried my best to record the images of the beautiful icebergs in my mind.				
28 ④	29 ①	30 ③		

- 01 ④의 영영풀이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공간, 시간, 질, 양적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다'로 approach(다가가다)에 해당한다. depart(출발하다)의 영영풀이는 to go away or leave, especially on a journey(특히 여행에 있어서 가거나 떠나다)이다.
- ① 발목: 발과 다리 사이의 접합 부분
 - ② 의상: 특정한 일이나 활동을 위해 입는 옷
 - ③ 흔적: 사람, 동물 또는 어떤 것이 움직여서 남은 냄새나 일련의 자국들
 - ⑤ 박수를 치다: 손으로 박수를 쳐서 공연이나 연설과 같은 무언가에 동의나 즐거움을 보여 주다
- 02 look good on: (복장 등이) ~에게 잘 어울리다
내 생각에 이 바지가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어때 보여?
① (탈 것에서) 내리다 ② ~으로 변하다 ③ (위를) 올려다보다 ④ 사진을 찍다
- 03 (1) 당신이 말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때 단호하게 말하거나 강력하게 요구하다: 주장하다, 고집하다(insist)
(2) 액체의 표면에 있고 가라앉지 않다: 떠오르다(float)
(3) 상황이 경우가 특별한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즐거운 무언가를 하다: 축하하다(celebrate)
(4) 누군가를 즐겁게 느끼도록 만들다: 즐겁게 만들다(chill)
- 04 (1) handicraft: 수공예품
(2) faith: 믿음, 신뢰
(3) book: (기차·비행기·호텔 등을) 예약하다
display: 전시; 진열하다, 전시하다 / ferry: 연락선,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 / wave: 흔들리다, 흔들다; 파도; (수많은 사람·사물의) 물결
- 05 여자의 질문에 남자가 'Yes, I have.'라고 답변하므로 빈칸에는 ④ '꽃지 해변에 가 본 적 있니'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꽃지 해변에 왜 갔니
 - ② 꽃지 해변에 갈 거니
 - ③ 꽃지 해변에 갔었니
 - ⑤ 꽃지 해변에 대해 알고 있니
- 06 전설에 따르면 사령관의 아내가 죽은 이후에 바위가 되어 그 바위는 할매바위라 불렸고, 할매바위는 틀림없이 사령관을 가리킨다는 흐름이 적절하므로 ⑤ '그럼 할매바위는 사령관일 리가 없어.'는 대화의 전체 흐름상 어색하다.
- 07 수건을 챙길 것인지 묻는 Kevin의 질문에 엄마는 리조트에서 수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흐름이므로 ㉠ buy(구입하다)를 provide(제공하다)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08 「Don't forget to + 동사원형 ~.」은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무언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 사용한다.
- 09 자랑했던 것보다 축제에서 영화배우를 만났던 것(실제로는 만나지는 않았음)이 더 이전의 일이므로 과거보다 더 이전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은 as if 가정법 과거완료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주절의 시제를 과거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 10 충고를 나타내는 동사 advise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로 쓴다.
- 11 그녀는 하버드 학생이 아니므로 is를 as if 가정법 과거의 동사 were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그 펜은 마치 젓가락처럼 보인다.
 - ② Jake는 마치 자신이 Rachel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녀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다.
 - ③ 그녀는 마치 자신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내 눈을 피했다.
 - ④ 그 교사는 마치 그가 달리기에서 우승했던 것처럼 그를 칭찬했다.
 - ⑤ 그녀는 마치 자신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인 것처럼 말한다.
- 12 ③ 주장, 요구, 제안, 명령 등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낼 때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하므로 were를 (should) be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그녀는 자신의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 ② Kevin은 내가 Joan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 ③ 그는 길들이 그 땅을 가로질러 성에 연결하여 건설되도록 지시했다.
 - ④ 그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⑤ 이 대학은 학생들이 수업 시작 최소 2주 전에 교과서를 주문할 것을 제안한다.
- 13 as if 가정법 과거를 활용하고, '계속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keep + 동명사」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14 (1)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 order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므로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온 것은 적절하다.
대통령은 더 이상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건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2) 동사 insist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that절의 동사는 문장의 시제에 따라 is로 고쳐 써야 한다.
그 기상 예보관은 거대한 폭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 15 북극광을 직접 보고 감탄한 상황이므로 글의 분위기로는 ④ '매력적이고 환상적인'이 적절하다.
- ① 슬프고 우울한
 - ② 긴장되고 긴급한
 - ③ 무섭고 겁나는
 - ⑤ 혼란스럽고 단절된
- 16 주어진 문장은 '나는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의 지혜와 강한 투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동물 가족을 이용해 옷과 배를 만들고 동물 뼈와 뿔을 이용해 무기들과 도구들을 만든다는 내용 바로 뒤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7 주절이 과거인 as if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므로 동사의 과거형의 부정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18 의상들, 도구들, 수공예품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능동의 의미인 현재분사 making을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made로 고쳐 써야 한다.
- 19 비행기에 내려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안전한 도착을 축하하는 오랜 전통이라는 흐름이므로 ㉠ informing(inform: 알리다)을 celebrating (celebrate: 축하하다)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20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전치사(without) + 동명사」, 관계부사 why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21 주어진 문장은 '저녁을 먹는 동안 Nielsen 가족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그린란드의 전통에 대해 말해 주었다.'라는 뜻으로 바로 뒤에 내가 전통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말하자 그들이 그린란드 국립 박물관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우므로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2 (A) enter는 '~에 들어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into)를 쓰지 않는다.
(B) 채소는 '다져지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chopped가 적절하다.
(C)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suggest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낼 때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와야 하므로 동사원형 go가 적절하다.

- 23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다시 한 번 그린란드를 내려다봤다는 흐름이므로
㉠ structure(건축물)를 landscape(풍경)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24 그린란드가 나의 기억 속에 항상 역동적이면서도 다채로운 방문지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 ‘역동적이면서 다채로운 방문지’
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1년 내내 봄인 곳
③ 시간을 보내기에 고급스러운 곳
④ 가장 유명한 나라들 중 하나
⑤ 사람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곳
- 25 주어진 문장은 ‘그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통과하는 개 썰매들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야.”라고 말했다.’라는 뜻으로, 표지판의 의미를 묻고 대답해 주는
내용이므로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6 밑줄 친 them은 앞에서 언급한 icebergs를 가리킨다.

- 27 ‘계속 사진을 찍다’는 keep taking pictures로 쓰고,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tried my best to ~로 쓴다.
- 28 선행사(curtaons of green lights)가 있으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9 바로 앞에서 하늘에서 북극광에 대한 어떤 조짐도 없이 수 시간이 흘렀다고 언급했
으므로 빈칸에는 ㉡ ‘북극광을 볼 수 있을지 의심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북극광이 무슨 색깔인지 궁금해하다
③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
④ 우리가 북극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다
⑤ 우리가 벌써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다
- 30 날씨가 어두워진 후에는 북극광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찍 자리를 잡아
야 한다고 Nielsen 씨가 주장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다.